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試驗制度撤廢에 對하야

一

來十月中旬부터 開催되는 日本內地의 全國中等學校長會議에 있어서는 中等學校 入學試驗撤廢問題를 眞摯하게 硏究하리라고한다 卽日本內地에잇서서는大正十三年에 中等學校規定中 定員超過할때에 試驗으로 選拔할수잇다는 條項을 削除하야 原則上으로는 入學試驗을 보이지 안케되것인데 當務者가 入學許可者銓衡에 不便을 늣기고 또한 弊端이 따르는 關係上 原則을 無視하고 다시 試驗制度가 復活되것이든바 最近에 와서 原則으로 도라가라는 運動이 旺盛하아지기 때문에, 다시 이問題를 協議하야, 試驗制度撤廢를 企圖하려는모양이다. 따라서 이會議의 結果如何는 普通學校入學에까지 口頭試驗乃至 멘탈테스트의 形式으로 事實上의 猛烈한 一種의 入學競爭試驗을 課하고잇는 朝鮮에 암示不少가될것이라고생각한다.

二

도리켜 朝鮮의 中等學校의 入學試驗에 對한 現狀을 보건대 朝鮮은 中等學校의 數가 入學志願者를 收容하는데잇서서 日本內地의 그것에 比하야 問題도안되도록 적기때문에 그 競爭率은 日本內地의 高等專門學校入學試驗競爭率에 比할만큼 高度에 達하고잇다 그러키때문에 朝鮮에 잇서서는 原則上으로, 中等學校入學試驗을 撤廢하려는 問題는 理論上의 問題에 끄첫것이고 오직 普通學校卒業時에 中等學校入學試驗準備를 爲한 課外敎授를 一時間以上식히지 안는다는 程度로만 制限을하엿섯다 普通學校의 入學조차 猛烈한 競爭이 演出되고잇는 狀態下에서 七對一乃至十五對一의 高率의 入學競爭을 가진 朝鮮의 現狀에잇서 中等學校試驗制度撤廢가 原則上으로도 具體化하지 못한것은 當然한 現實의 反映이엿다 할것이다.

三

그러나 問題는 日本內地의中等學校長會議의結果 中等學校入學試驗制度가 完全히 撤廢되다하고 또朝鮮의中等學校가 이에 追隨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形式에 不過할것은 明若觀火한일이다 名目上으로 入學試驗을撤廢하는 形式을取하드래도 五對一 十五對一等의 高率의 入學競爭狀態下에 잇서서는 實質的으로는 結局 試驗에갓가운 嚴選하는 銓衡을 한다든지 財產身分等을 置重하게되든지하는 標準을 定하게될것은 定한理致임으로 이것은 도리혀 入學試驗以上의 不公平을 招來할念慮가 잇는것이다 그러므로 朝鮮現下의 中等學校志願者를 收容하기에 너무나 그數가적은 狀態下에서는 中等學校를 積極的으로增設擴充하는以外의 모든것은姑息的 日本內地에對한 形式上의 追隨밧게 못될것이다。中等學校入學志願者는 아직 心身이 發達되지 못한 少年들로써, 完全한 普通常識을 學得키爲하야 그程度의 常識을 어드려는것임으로 專門知識을배워 一技一藝를 獲得하려는 專門大學의 入學試驗乃至 國家의 人材로서 登用할資格을 審査하는 國家試驗等과 完全히 類別하는 敎育本能의 見地에서 入學試驗을 撤廢한다는 意圖는 勿論 조흔일이지만은 要는 形式보다 實質問題이다 中等學校를 增設擴充하야 猛烈한 入學競爭을 緩和하는것이 自然스러운 敎育理想의 實現이 되는것을 再三考慮할것이다。

日本政府의處置는 條約精神과合致
潛水艦超過噸數要求에對하야
海外兩省協議結果

有田外相

永野海相

【倫敦六日發同盟】英國政府는驅逐艦及潛水艦超過噸數保有에關한 日本政府의通牒을接受한以來 外務、海軍兩省合議下에 愼重硏究를하고잇섯는데 結局日本政府의處置는 倫敦條約의「精神」에 合致한다는結論에 到達하엿다 한다

一、英國政府의見解는 如左하다

一、英國政府의驅逐艦 에스카레ー타ー條項援用에對하야 日本政府가 潛水艦超過噸數保有를 申請한것은 그內容에잇서서 조곰疑義가잇스나, 海軍當局은 倫敦條約第廿一條의精神에合致함

一、따라서 米國政府가 指摘한 바와가튼 英國政府의驅逐艦保有에對하야 別個艦種을 保有할것은 다시 에스카레ー타ー條項의 援用을必要로한다는 狹隘한見解에는 贊成할수업슴

以上의 見地로부터 英國政府는 前週 日本政府에 對하야 回答案의起草를 完了하엿다는데 마ー천極東情勢가 急進한實情에鑑하야 新聞回答의發表를 保留하엿다한다 卽保留理由例擧한것은 如左하다

一、日本政府가 中國에對하야 保護論을確立한다는方針이 傳하는此際 英國政府가 日本政變에好意的回答을與하면 日本政府의 中國政策을 支持하과가튼誤解를 惹起할

一、英國政府는 極東問題에對하야 米國政府와協力치안흐면 아니되는데 此際海軍問題로米國政府에反對하야 兩國의交國를 疏隔하는것은 中止치안흐면아니됨

貴院公正會 調査委員會를開催

【東京電話同盟】貴族院公正會는 七日午前十時 電力國營案(?)調査委員會를開하고 遞信省으로부터 賴母木次官、大和田電氣局長을招하야 同問題에對한 遞信省方針에 關한說明을聽取、여러가지 意見을交換하엿다 또午後一時半부터 行政機構改革에 關한 委員會를開하고 小橋一太氏를招하야 同氏의意見을 聽取한後 여러가지로協議하엿다

武井河川課長 山形縣知事로任命

【東京電話同盟】山形縣知事金森太郞氏의 東北興業株式會社 副總裁就任에 伴하는 地方長官異動은 七日內務省에서 如左히發令되엿다

任山形縣知事(二等) 河川課長 內務書記官 兼鐵道書記官 武井群嗣

『체코슬로바키아』도 平價切下를斷行
列國平價切下에追隨

【프라ー그六日發同盟】체코슬로바키아政府는 各國政府의 平價切下에追隨하야 六日 크라운貨의 金純分을 三三、二一미리그람으로부터 三一、二二미리그람으로 引下하엿다

단치히自由市 高級委員罷免

【단치히六日發同盟】단치히自由市參議會議長 그라이저氏는六日 聯盟事務總長아브놀氏에 對하야 書翰을 發하고 단치히高級委員 레스타ー氏의 罷免에滿足한 意를 表明하엿다 그라이저ー氏의 書翰內容은 如左하다

단치히 問題審議에 關한五日의 聯盟理事會에 出席하라는 招請狀을 接受하엿는데 右招請狀到着이 遲延되여 드듸여 出席치못하엿다 但聯盟高級委員레스타ー氏를 罷免한다고決定한點에 對하야는단치히自由市參議會는無條件으로贊成한다ー

一方레스타ー氏後任에 對하야는 波蘭側에서는 단치히駐箚波蘭總領事가 聯盟高級委員을 兼任할것이라 推測하고잇다

重光駐蘇大使 滿洲로부터入京

赴任을압두고 東亞의現狀을正觀하기爲하야 北中 滿洲國을視察中이던 駐蘇大使重光葵、總領事澤田廉三兩氏는 歸東途中今七日午後二時五十分 京城驛着列車로入京, 朝鮮호텔에들어가 少憩後 總督府에大野政務總監을訪問 各種懇談後 景福宮을巡覽하엿는데 午後五時四十分總督官邸에서 南總督招待의晩餐會에臨하고 朝鮮호텔에서一泊 八日午前九時朝鮮神宮에參拜 昌德宮德壽宮을 拜觀하고 正午大野政務總監招待午餐會에臨한後 午後三時發「노조미」로歸東할터이다

印度支那프랑貨切下

【東京電話同盟】在佛蘭西佐藤大使로부터 七日外務省着公電에 依하면 佛領印度支那는 今回프랑貨의 平價切下에 伴하야 同國貨의 銀行貨幣制度를 停止하는旨를 二日大統領令三日官報로서公布하엿다

北海道林業試驗場에 天皇陛下行幸

【野幌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七日午前十時五十七分 宮廷列車로 野幌驛御着, 地方官民多數奉迎裡에 三十五萬아ー르全場을 森林으로 되여잇는 北海道林業試驗場에 行幸, 二號第一應接室 御休憩所에서 石原場長으로부터 場勢奏上을 御聽取 御乘馬服으로 御召替後, 標本陳列을 天覽, 標本約二千百六十點을 御興味기피御巡覽하압신後, 御愛馬白雪에御乘馬, 宇佐美侍從武官長以下供奉員은 모다乘馬로 御供奉하고 騎馬의 石原場長의 御先導로 千古不伐의 大森林에 紅葉이 深秋를 告하며 潤葉樹가 華麗하게 鬱蒼한 大原始林을 御進行하압시와 約二里의 小道를 御緩悠히 驅를모르시사, 霰山宿舍에着御、御少憩後 再次御乘馬로御出發, 往路는道路로 드시사 大澤小屋에서 北海道全道의 모든樹木을 各種按配하야 建立한 이小屋에서 特히 御叡慮기프신것으로 拜察되엇다 이로부터 自動車로 試驗場에還御 御通常禮裝에 御變着하압신後 午後二時三十八分同所 御發野幌 御發車同三時十分 札幌驛 御着車 行在所에 還幸하압시엿다

稅制整理에依한 新稅及稅率改正
若干의未定的部分은除去코
七日正午大藏省發表

【東京電話同盟】大藏省은 過般의 閣議席上 馬場藏相으로부터 地方、中央을通한 稅制整理案의 大綱을報告하고 今後의 財界其他一般社會에 及할 影響에對하야 注目하는一面 事務當局에서 大綱의 發表當時未定이엿든 稅率稅收入其他의部에 對한 計數整理를進行하고잇든바 大略豫想을할수잇게되엿슴으로 七日正午若干未定의部分을 除하고 左와如히 發表하얏다(大藏省發表)

(寫眞은 馬場藏相)

所得稅

一、法人所得稅率을 左와如히改正함

正함

普通所得

本法施行地에 本店又는 主要한事務所를有한 法人百分十(現行百分五)

本法施行地에 本店又는 主要한事務所를 두지안는法人 百分十二(現行百分十)

超過所得

普通所得金額中 基本金額에對하야 年百分七의比例로써 算出한金額을 超過한金額 百分八(現行一割超過百分四)同百分十五의比率로써 算出한金額을 超過한金額百分十六(現行二割超過百分十)同百分二十五의比例로써 算出한金額을 超過한金額百分二十八(現行三割超過百分二十)

淸算所得 百分十(現行百分五相當)

積立金又는 不課稅所得金額에對한課稅現行百分五는 廢止、生產分配金은 此를個人에게綜合課稅함

二、國債利子의 免稅를廢止하고 法人에對하야는 百分의二十五의控除를行하야 課稅함

三、第二種所得中 甲의所得에對하야는 源泉課稅를 廢止하고 左의控除를行한後 綜合課稅함

地方債利子 金額百分의三十

社債 百分의三十

銀行預金 百分의三十

貸付信託利益 金額百分의三十

四、國債利子에對하야는 免稅를廢止하고 左와如한控除를行한後 綜合課稅함

利子金額 百分의五十

五、產業組合貯金及 銀行貯蓄預金(定期積立을除함)元本二千圓을超過한境遇에限하야 免稅를廢止하고 左와如한控除를行한後 綜合課稅함

利子金額 百分의四十

六、當分間 國債及預金利子및貸付信託利益에對하야는 納稅義務者의申請잇는境遇에限하야他稅率로써 利子支拂時에 課稅할수잇슴

國債利子 百分의四

銀行預金利子 百分의七

貸付信託利益 百分의七

產業組合貯金及 銀行貯蓄預金 百分의三

七、第二種所得中 乙所得에對하야는 그稅率(現行百分의七)을百分의十으로改正함

八、第三種所得에對한 稅率은 千圓以下의金額에對한 百分의八로써 四百圓을超過한 金額에對한 百分五十八에 至하는 超過累進稅率로함

營業收益稅

一、稅率을 左와如히改正함

法人百分四(現行百分三、四)

個人 純益一千圓以下 百分二(現行百分二、二)

純益一千圓을 넘고三千圓以下 百分二、六(現行대로)

純益三千圓을넘는것百分三(現行百分二、六)

資本利子稅

一、稅率을 左와如히改正

甲種 國債利子百分二(現行대로)

地方債利子 百分四(現行百分二)

其他百分五(現行百分二)

乙種 百分五(現行百分二)

二、產業組合貯金及銀行蓄貯預金(定期積金을除함)利子에對하야는 元本二千圓을넘는것에 限하야 左記 稅率로서 課稅함

百分四

鑛業稅

一、稅率을 左와如히改正함

採掘鑛區稅

一、〇〇〇坪마다 八十錢(現行一、〇〇〇坪마다六十錢)

鑛產稅

一、鑛產物價格 一千分六(現行鑛產物價格一千分五)

二、金鑛、銀鑛、鉛鑛에鑛產稅를 課함 但金鑛에對하야는 千分十二의 稅率로함

三、새로 鑛產稅를 課하는 金鑛、銀鑛、鉛鑛에對하야는 現行대로의 附加稅率로함

四、稅率을 規定함 金額에對하야는 道府縣二割 町村五割의 附加稅를 認定함

四、試掘鑛區稅 稅率을 左와如히改正하고 試掘權設定登錄을 要할時 此를 納付케함

千坪에對하야 五十錢(現行 千坪에對하야 三十錢)

酒稅

一、稅率을左와如히改正함

第一種

淸酒第一種 一石에對하야 五十二圓 酒精分二十度를 넘을時는 二十度를 넘는一度마다 二圓六十錢을加한金額

第二種 一石에 對하야 四十八圓 酒精分二十度를 넘을時는 二十度를넘는 一度마다 二圓四十錢을加한金額

第三種 一石에對하야 四十六圓 酒精分二十度를 넘는時는二十度를넘는一度마다 二圓三十錢을加한金額

第四種 一石에對하야 四十四圓 酒精分二十度를 넘는時는 二十度를넘는 一度마다二圓二十錢을加한金額

濁酒 一石마다四十圓 酒精分二十度를 넘는時는 二十度를넘는一度마다 一圓을加한金額

白酒 一石에對하야 四十八圓 酒精分二十度를넘는 時는二十度를넘는 一度마다 二圓四十錢을加한金額

味淋 一石에對하야 四十八圓 酒精分 二十度를 넘는時는二十度를넘는 一度마다 一圓을加한金額

參酒、一石에對하야 四十圓

果實酒 一石에對하야 三十圓

其他의酒 一石에對하야 五十圓 酒精分二十度를 넘는一度마다 二圓五十錢을 加한金額

印紙稅

一、現行法에서 階級定額稅를課하는 證書에對한 稅率을左와如히定함

記載金高五十圓以下 三錢

同 百圓以下 五錢

同 千圓以下 五十錢

同 一萬圓以下 一圓

同 十萬圓以下 三圓

十萬圓을넘는것 五圓

記載金高업는것 五錢

二、委任狀稅率現行二錢을三錢으로改正함

三、現行法에서 三錢의金額稅를課하는것證書、帳簿、約束手形及爲替手形을 除하야 稅率을 五錢으로고침

四、約束手形、爲替手形、稅率은 階級定額으로하고 左와如히改正함

記載金高二百圓以下 三錢

同 一千圓以下 二十錢

同 一萬圓以下 五十錢

同 一萬圓을넘는것 一圓

五、預金帳簿以外의 通帳稅率現行五錢을十錢으로

六、判取帳稅率 現行三錢을五錢으로

登錄稅

一、不動產에 關한登錄稅를左와如히輕減함

가、相續에依한所有權取得及所有權賦與 一千分三(現行一千分五)

나、無償名義에依한 所有權取得 一千分三十五(現行一千分四十五)

다、賣買에 依한 所有權取得 一千分二十五(現行一千分卅三)

라、信託의 境遇의 稅率은 右에 準하야 低減함

二、會社創立增資等의 境遇의 稅率을 左와 如히 改正함 一千分七 (現行 一千分五)

未定稅率은追後發表

【東京電話同盟】稅制整理에 依한 改正稅率은 七日 別項과 如히 發表되엿는데 右發表中 所得稅에잇서 同屬會社의 加算稅率 相續稅 砂糖消費稅 取引所稅의 各稅率等은 아즉 硏究中이므로 未定이나 此等은 追後發表할터이다

新稅率發表에 金融界는好感

【東京電話同盟】七日發表된新稅率에 對하야 金融界는如左히 매우 安心的觀測下에 新稅率은 全般的으로 好感을가지고잇다 新稅率은 金融界의 豫想과 大差가업스며 銀行利子國債利子에 特別히 考慮하야 優遇되여잇고 金融業者로서도 國策的見地에서 이程度의 增稅는 甘受치안흐면안된다고 하고 또金融方面에의影響도 大端히 微弱하야 前途는 何等 憂慮할것이업다고한다

伯移民法委員長 新移民法案脫稿
勞働省移民局과協力하야
下院憲法委員會에提出

【리오데자네이로六日同盟通信員發】브라질政府는 移民法에關한 根本的再檢討를 行하기爲하야 移民法 指導委員會를 任命하고 專門委員을 擧하야 그具體化에 當케하고잇는데 一方 勞働者法律顧問으로 委員長인 오리부에이라비안나氏는 委員會의 事業을 이週間하게進捗하는 事實에 鑑하야 勞働省移民局長 맛샤ー드氏와協力, 獨自의 新移民法案을脫稿, 다시 大日勞働省의 손을거처下院憲法委員會에 提出하엿다

國產保護見地에서 食糧品專賣實施
野菜種子、果實、葡萄酒等의輸入은官營
獨逸政府六日公布

【伯林六日發同盟】獨逸政府는國內市場의 統制及 國產保護의見地로부터 輸入食糧品의 專賣制를 實施하기로決定、六日如左히 公布하엿다

野菜의種子、果實、葡萄酒等의 輸入業者는 輸入品을 官營의 買入所에持參 公價格으로서 賣却할義務를負함

中國紙論調强硬

【漢口六日發同盟】川越、蔣介石會見을 目前에두고 漢口各中國新聞은 一齊히論說을揭載、그論調는相當히 强硬하야 모다屈辱的 諸條約不調印을主張 東北失地回復、上海、塘沽、兩停戰協定의 廢棄等을 提言하고잇다

謠言盛行으로 中國人續續避難
各新聞의刺戟的論調로

【上海七日發同盟】蔣介石氏의歸京과 日中交涉展開를 앞두고 中國各方面에 對日强硬論이 擡頭하야 中國各紙에 民衆을 刺戟할과如한 論調가 揭載되여 人心이 不安中에잇는데 昨日來 江蘇全省에 臨時戒嚴令이 公布되까닭에 中國軍은 積極的으로 防備를 굿게하고 武力을 充實히하야 日本의 侵略을 阻止할必要가잇다는等의 謠言이 傳하야 上海、吳淞方面의 民衆은 極度로 恐慌中이며 昨夜來 中國街居住의 中國人은 大半荷物을가지고 自動車、人力車로 續續租界內로부터南市方面에 避難하고잇서 北四川路는 大混亂을呈하고 公安局及保安隊는 此等鎭靜에 大奔忙中이다

人事・集會

◆靑曉植氏(本社顧問) 七日入京 中央호텔에

◆金南泰氏(市內城北町一七九의二六) 七日午後二時頃配

夕刊後市況 七日

◆大阪 短期 氣配◆

大新	七二〇〇	(不變)
鐘新	一七三九〇	(不變)
日產	八三六〇	(不變)
東新	一三七五〇	(一〇低)

◆橫濱 生糸 後引◆

當限 七三九〇〇 先限 七三二〇〇

◆福井 人絹 後引◆

當限 五九二〇 先限 五七七〇

早稻田大學講義錄

일하면서 完全한學力을 엇는方法

그것은早稻田大學의校外生이되여배우는것이다

校外生은左記講義錄에依하야自宅에서배우는學徒이다

小學校를卒業하면 누구나入學自由

詳細는 內容見本에依하야 아시라

校外生의帽章

中等學校程度

講義	期間・學費
中學講義	前期・後期各一ケ年半 學費月一圓
商業講義	一ケ年半 學費月一圓
高等女學講義	一ケ年半 學費月一圓
電氣工學豫備講義	一ケ年修了 學費月一圓

專門學校程度

講義	期間・學費
政治經濟講義	一ケ年半 月一圓廿錢
法律講義	一ケ年半 月一圓廿錢
文學講義	一ケ年半 月一圓廿錢
建築講義	一ケ年半 月一圓卅錢
電氣工學講義	一ケ年半 月一圓卅錢

內容見本

見本은반드시希望의講義錄을써서 申込할것

申込所 東京牛込 早稻田大學出版部 振替東京一一二三 電話牛込三一四五

學生美展第三日

京鄕各地男女學生 團體入場者激增

매가修學旅行의好機會임으로 會場內外에汎濫하는長蛇陣

본사주최제일회 전조선학생미술전람회는 오늘로(칠일) 벌서 그호화로운 막을열은지 제삼일을 맛게되엿다 이전람회는 예술조선의 꼿다운 싹들, 전조선 남녀중、초등학생들의작품의정화만 뽑고뽑아서 동양화、서양화 조각、자수、수공품등 구상으로나 채색으로나、필치로나 어느 점으로보나 한층 뛰어난 작품만 한곳에 모아 진열하고 본사가 상당한 자신을가지고 만천하독자에게 이바지하는것인만큼 처저본이가 아즉보지안흔이들에게 그가본내용을 소개하고 한번꼭보기를 권하고또권하야 날이거듭될사록 참관자는 개인으로 단체로 더욱더욱 늘어가서 회장아페는 관중의장사진을 일우는현상이다 더구나때가 수학려행의가을로서 지방으로부터오는학생단체가 이천재일우의 조흔긔회를 리용하야 전람회를참관오는 단체가만허서 회장은마치백화란만한 예술품미레 남북각처의중초등학생들의 교환이버러진듯한 상태이다 칠일참관한 단체와 인수는 다음과갓다

▲元山進城女子普校生徒三七名 ▲貞信女學校生徒五八名 ▲白川公普校生徒七三名 ▲培材高普生徒五六名 ▲向上女山實業學校生徒五〇名

貴報를通하야— 感謝의뜻을表합니다

南昇龍君은東京에처저就學 七日孫君神戶에凱旋

【大阪에서本社東京支局長申泰翊電話】 멀리독일백림에서열린 제십일회 세계올림픽·마라손에출전하야 세계적선수 오십륙명을 단숨에 제치고 당당히개선가를 부른 우리의보배 손긔정(孫基禎)군과 삼착에입상한 남승룡(南昇龍)량군은 삽곡(澁谷)감독 인솔아래 사십칠명의용사와함께 칠일오후다섯시반『엠프레스·오브·러샤』호로 신호(神戶)에 개선하엿다

이날러샤호는 오전세시반에 신호항에 입항하엿스나 검역(檢疫)관계로 잔교(棧橋)에는대지못하엿스므로 긔자는 당지 수상경찰서의 호의를어더 『란치』를빌려타고 『러샤』호에 제일착으로올러가 손군과 남군을 맛나서 감사와 축복의 뜻을 표하엿다 그리고 준비해가지고간『조선일보』와 조광(朝光)잡지를 량군에게주니 오래간만에 보는 조선말신문과 잡지를 손에 들고 희색이 만면하야 다음과가티 말하엿다

▲孫基禎君談 먼저 조선일보를 통하야 저를 성원하야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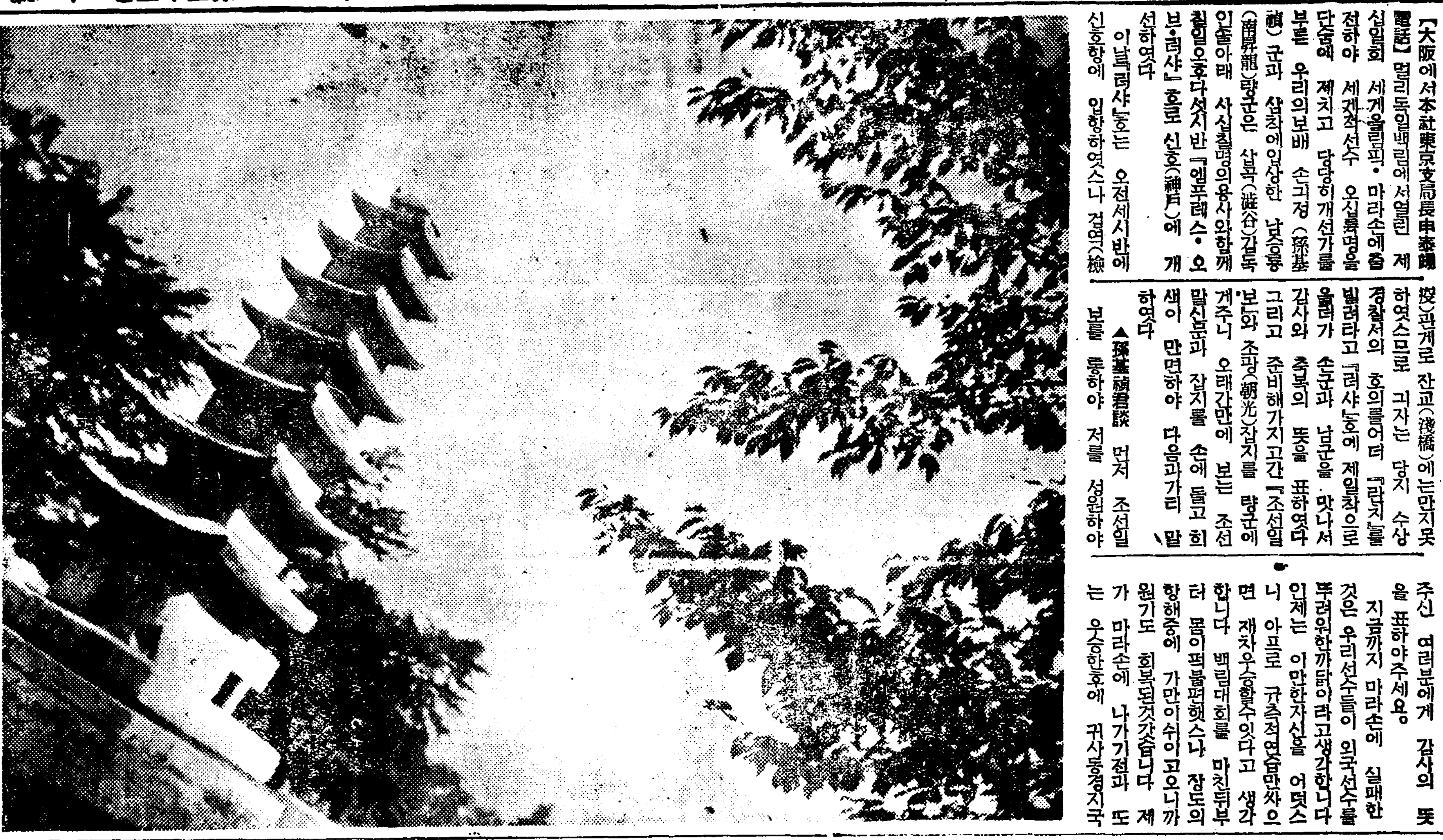
지금까지 마라손에 실패한것은 우리선수들이 외국선수를 두려워한까닭이라고생각합니다 인제는 이만한자신을 어덧스니 아프로 규측적연습만싸으면 재차우승할수잇다고 생각합니다 백림대회를 마친뒤부터 몸이펌불편햇스나 장도의 항해중에 가만이쉬이고오니까 원기도 회복된것갓습니다 제가 마라손에 나가기전과 또는 우승한후에 귀사동경지국에서 국제전화로 불러주신것은 이번원정중에 이즐수업는 고마운 일이엿습니다 더욱이 우리들에게 귀사에서 표상메달을 주신다하오니 충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이번 우승으로 타가지고오는 월계수(月桂樹)는 그만 회분에서 시드러 버렷습니다 오늘저녁차로 동경에 갓다가 구일날이나 십일날 동경을떠나 그리운고향으로 도라가겟습니다

▲南昇龍君談 마라손에 삼착으로 입상한 남승룡군은 멀리 고향순천(順天)으로부터 출영한 부친 남찬숙(南贊淑)씨를 맛나 기뻐에 넘치는 어조로 다음과 가티 말하엿다

여러분의 후원에 힘입어 입상한것은 감사하야 마지안습니다 아프로도 주위사정이 허락하면 다시 동경에서 공부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저는 학교관계로 이번에 향리에는 도라가지안코 동경에 처저잇겟습니다 귀사에서 우리에게 표상메달을 주신다하오니 무엇이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릴는지요

(사진 우는 손긔정군 좌는 남승룡군)



◇……秋光明朗……(塔잇는風景)(景福宮안에서)

거슬름돈詐欺漢

七日、竹添町에또出沒 巧妙한手法이저번과恰似

본지에 긔보한 오일오후부내죽첨정(竹添町)이정목 염택(鹽澤)식료품상점에 왓든 거슬름돈사긔한과 꼭가튼이상에 수법(手法)조차이와 흡사한 거슬름돈사긔사건이 죽첨정(竹添町)에또 발생하엿다

칠일오후 두시사십분쯤에 부내죽첨정(竹添町)일정목 백번지 장긔옥(長崎屋)과자점에한내의에 검은 양복바지를 입은 약삼십세가량되여보이는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와서 『쵸코레-트』일원사십전어치를산후 점원 홍승목(洪承睦)(一七)에게 들려가지고 정동정(貞洞町)이십오번지 로서아사람『보-리스·야카레프』집아페와서 『이집에는 사나운 개가 잇스니 물건을 달라』고한후 담여프로 도라갓다 그후 약삼분후에 다시 도라와서 지금 십원짜리밧게업스니 집에가서 거스름돈을 가저오라고한후 거긔서 기다리다가 전긔 홍승목에게 거슬름돈 팔원륙십전을 바더든후 문안으로 사러지고 말엇다 그후 또다시 조곰 잇다가 나와서 자긔는 십분을 여긔서 잠간만 기다리라고 한후 재판소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갓는데 거동이 수상하야 주인을 차저 진부를 다지니 그제서야 감쪽가티 속은줄을 알고 박문창(朴文昌)과가티 자전거로 추적하엿스나 이미 때는 늦저 그만 노처버리고 말엇다 한다

鹿島丸끄내는作業 順調로着着進行

七日夜半엔仁川埠頭에到着? 屍體五個또發見

【仁川支局電話】 팔미도바다에침몰된 록도환의선체를 끌려내는 작업은 지금도계속중인데 칠일오후세시경에는 시체다섯개를발견하엿다 그중에서 시체두개는 조난현장에서 발견하엿고 세개는 인천해안에 표착된것을 발견하엿는데 그시체의 신원(身元)은 두사람만 판명되엿고 세사람의신원은 아직알수업다한다 그런데 판명된두시체는

京城府新設町三七三의一二〇 朴 氏(女)(二?)

瑞山郡伊北面官里 韓英玉(男)(二〇)

그리고 신원을알수업는 세시체가운대에는 회색양복을입은신사풍의 남자로 이백삼십륙원이 잇섯다한다 그리고 칠일오후여섯시경 조난현장에서보낸 전서구(傳書鳩)의 통신에의하면 동일오후세시경에 경비선과 그외의세척발동긔가 침몰된 록도환의선체에『로푸』를 네곳에 달고 배를 끌고 나오는 중이라는데 이작업이 여의하게 진행된다면 칠일밤아홉시부터 열시까지에는 인천부두에도착될예정이라한다

帽子窃取未遂

시내 남미창정(南米倉町)이백사십오번지 복덕무진회사(福德無盡會社)소사장홍수(張應洙)(三?)는 이렛날 저녁다섯시에 본정삼월(三越)백화점에서 폐점시간이 갓가워 번잡한틈을타서 시가십륙원짜리모자를 훔치다가점원에게 발각되여 소관본정서로 넘기엿다

再襲한暴風雨로 店舖等多數倒壞

羅津府內被害酷甚

【淸津】 지난이일부터 사일아침까지에 습래한폭풍우로 연안일대에 피해가적지안튼바 특히라진부(羅津府)방면에 피해가심하야 신축중인 부제이팡장의 일용품시장(日用品市場)을 비롯하야 상점수동이 도괴한외에 ″빠락″의도괴된자가 속출하야 피해액이 막대하리라한다

京都在留同胞 罹災民에同情

【京都】 경도시상경구 대덕사전(大德寺前)아페사는 손성동(孫性東)씨외 일본인사는 전번수해에 가장집물을 전부떠내려보내고박두하야오는 겨울을압두고 방금 긔한에 떨고잇는 리재동포들에게 전달하야달라고 광목(廣木) 팔십팔필과 의류이점을 본사경도지국에 긔탁하야왓는데 그내용은 다음과갓다한다

共榮棧 廣木三五尺 南粟基廣木一三尺 孫鄕東廣木一五尺五寸 南粟基織物工場一同七人廣木二四尺六寸

馬車뒤밀다가 갈려죽은少女

『상부상조』가 나흔 애처러운 죽엄——일에스날 오후네시반쯤되여 시내 대흥정(大興町)이백삼십오번지 언덕에서 짐을잡북실흔 마차가 올려가랴고 애를쓰고잇는것을 근처에서 놀고잇든 아이들이 보고 가이업시여 몰여와서 뒤를 올려몰고잇슬때에 무지한 마부의 아푼매에 못견되어 허더이든말이 그만 무릅을 꾸는바람에 마차가 아래로 밀리기시작하야 어린게집애하나이 그바퀴에 깔려 죽엇다 사룡하고말엇스며 부근에는 선혈이 랑자하야 보는 사람으로하야금 눈을 피하게하엿다 이가엽슨 죽엄은 대흥정 이백오십팔번지 단야중(段野重)의 둘째딸 영희(英姬)(六)로 판명되엿스며 마차군은 현석정(玄石町)이십?번지 신창만(辛昌萬)(?)으로 이와가티 위험한데 어린아이들을 접근케한것과 또마차가 밀리지안토록 방비를하지안코 이와가튼 비참한 교통사고를 낸것은 그의중대한과실이라하야 소관 룡산서에서는 엄중문초중이다

棄兒

이것도 닥처오는추위에 빼문한 한토막이다 윤생철도(尹生鐵道)의 애처로운 한토막이다 —칠일오후세시십분쯤에 부내죽첨정(竹添町)삼정목사백구십륙번지 고제원(高濟元)씨집문아페 어떤사람이 강보에싼 계집애를 버리고『소화구변신이월이십칠일오전아홉시출생』이라는첨서까지 잇섯스나 그는 미들수업고 생활고로 버렷다고 추측되며어린애는 고제원씨가 우선마터서 기르고잇다한다

十五萬圓財團完成 大邱愛隣會組織

學院、授産場、託兒所를經營 有志李哲洛氏特志

다년 경향을두고 긔독교선교사업에 종사해온 대구 리석락(李哲洛)씨는 일즉부터 사회사업에 힘쓰기로 널리 알리여진터인데 이번에 대구에 십오만원 재단법인애린회(財團法人愛隣會)를조직하기로하고 그회관을 대구부 내신정(新町)삼백십륙번지에 둔후 회원모집과 및 모든 회세확장에 활동을 하고잇다한다。

애린회의 사업으로는 첫째——사회정화(淨化)와개인완성을 목표로한 긔독교적정신을 발휘하도록 아동들을 교화하기위하야 복음학원(福音學院)을 경영하고(현재생도수는백설흔명)。 둘째——복음학원 생도들에게 사업에대한 실지교육을하기위하야 수산장(授産場)을시설하고。 셋째——『은총탁아소』(恩寵託兒所)라는것을 두어서 근로계급의 가정자녀들을위하로동안 마터 양육하는것(현재한살이상 여섯살까지된 아이가설흔일곱명) 등 세가지로서 그회의 장래는 긔대되는바가 자못 만타고한다。

그리고 이상모든 사업은 그 경영주체인 대구애린회(大邱愛隣會)가 마타서 일체로 책임을지게되엿다는데 그회의 간부는 다음과갓다——

▲館長 李哲洛 ▲會長 白南埰 ▲理事長 朱德根 ▲理事 金正悟 金在明

伯林올림픽戰後譚 (3)

觸處에"싸인"攻擊 警官이달려와서群衆을抑制 秩序整然엔緘口感服

▼……손긔정(孫基禎)군이 명치신궁경기 마라손대회에서 지은 두시간이십륙분대의 긔록을말할때마다 백림에모인 외국선수들은 조소(嘲笑)하며 그당시의거리는 짤벗다느니 시게가 틀렷다느니 하든 그들은 손군이그 런힌든 코-스에서 두시간사십분대로 뛰여 올림픽긔록을지으니 과연그들은 경탄하야 축복의 미소를 띄울뿐이엿습니다

▼……우승한다고 전세계의 운동과자들이 봉음가추어『자바라』를 취켜올려세웟스나 그는 그만 락오(落伍)의 비운(悲運)을 늣기게되엿습니다 그것이바로마라손의 정체입니다 『컨듸슌』이 조흘때에는 우승하고 조금이라도 기분이낫부면 락오하는데 마라손의 특수성이 잇다고 봅니다 『자바라』가 만미돌과 마라손의 두가지를 한것이 파란을 이르킨 큰원인일가 합니다 만미돌을 위하야서는 스피-드가 필요하지만 마라손에는만미돌을 삼십분대에 뛰는 스피-드보담도 전거리를카바-할지구력(持久力)을 필요로합니다 이번자바라는스피-드만은 전회보다 빨랏지만 지구력에대한련습이 전에비해서 부족햇든것만은 사실입니다

▼……손군이 우승한 다음날 비로소 처음으로 구경을떠나서 이곳저곳으로 백림시가를 도라다니노라니까 손군을 만나는사람마다『싸인』을 해달라고 뎀벼서 구경을 못할지경이엇답니다 그러다가 수상경기(水上競技)장에 가서 안저잇노라니까『손기정군면회인이요』하고『라우드스피-커-』로 부르니 만장관중은 손군이 그곳에 와잇다는것을 알고 일제히 박수로 환영을하며 거기서도『싸인』을 밧겟다는 군중이 손군의뒤를 따르자 독일순사가 따려와서 제지하고 너머무리한『싸인』을 요구하지 말라고하며 손군이 피곤할터인데하고 위로의말을 던지는것도 가관이엿습니다

▼…올림픽이 끗난후 나는손군과 행정을달리하야『스위스』영국 불국으로 도라다니며 그곳의 체육시설을 보고왓는데 정거장에 내릴때마다 우리를 마중나온 그나라 환영객들은 일행중에『손긔정군이 잇느냐』고 무를때마다 우리일행중에는 가티오지안헛다고 대답하면 그들의 락심하는 기색을 볼때손군이 구주각지 아니 세계를 통틀어서 이번올림픽우승자중에서는 최고의인끼를 가젓다는것을 추측할수잇섯습니다

정씨의올림픽관전실담에 황홀하야잇다가 창문을내어다보니 벌서 로량진(鷺梁津)역을지나 한강철교에다처왓다 이때에긔자는『런던』『파리』등의 스포-츠시설에대한 이야기를청햇다

▼…그라운드마다 푸른잔듸바트로 기분이 아주 명랑해보엿습니다 물론 기후풍토에도 관계되겟지만 경성운동장과 가티 축구、럭비、륙상경기、빠스켓뽈가튼것을 한운동장에서 하게되니까 어듸푸른잔듸가 그대로잇슬수잇서야지요 그곳서는 각종목에 제각기딴운동장을가지고잇는 까닭이겟지요

▼…그곳의선수와 역원들의출입이 규률적임에는 감복햇습니다 선수들은 마음대로『필드』나『트랙』에 출입할수업섯고 반드시 소집원이선두에서서 일렬종대를지어 입장하고 경기가끗나면 역시일렬종대를지어 퇴장합니다 결승심판 게시원이 입장할때도 그러햇습니다 심지어『카메라맨』까지 정렬해서 입장하는데는 놀래지 안흘수업섯습니다

그리고 경기를할때에 창(槍)、포환(砲丸)、원판(圓盤)등의투척선수는 반드시 자기가던진창、포환、원판등을 자기가뛰여가서 가지고 도라옵니다 조선과 가티 역원이나 인부가 들려던지든지 가저오는것을 볼수 업섯습니다 이러케 백림올림픽을다녀오는 정씨의이야기는 끗칠줄 모르고 흥미가 무르녹아가는중에 렬차는 경성역에다엇다(곳)

(커트는 손군이가지고오는 마라손우승자의 개선을 의장화한 우승 금메달의 리면)

運動競技

神宮陸上競技 來十五日부터開幕

第十二回 朝鮮神宮奉賛體育大會 各道對抗陸上競技는 十月十五日(木)午前十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이며 第五回全朝鮮陸上競技選手權大會는 十六日과十七日午前九時부터 同場所에서 열리기로되엿다 그리고 마라손은 十六日正午에 스타-트할터이라하며 一般對學生對抗競技大會는 十七日午後一時부터 亦是京城運動場에서 行할터이라한다

先着 一萬人限하야

百補丸壹箱式無料進呈

萬金不換의 此事實!

健康回復의 最好期는왓다

初秋、天高馬肥之節이라

●朝鮮의 貴族 兩班 大臣 各界朝野名士諸氏의最大賞賛 愛用을 밧는 補藥은 事實 事實 百補丸뿐입니다

●今回 獨逸伯林서열닌 萬國大運動會選手에게까지 愛用된補藥은 事實 百補丸뿐이며百補丸은 補血、強壯劑로果然世界第一임니다

●世上에는 別別虛無誇大한 廣告도만흐나事實 百補丸과갓치効力조흔藥은다시업습니다

●百補丸의 偉大한効力은 只今 區區한 說明을할必要가 업사오니 廣告보다 事實을밋고쓰시요

◎◎靑春을 延長하고저하는 사람 不老長壽를 希望하는 사람은쓰시요

◎過飲過色人께 特速効합니다

◎男女老少를 勿論하고 虛弱한 사람은다쓰시요

●氣血이俱虛하야 貧血이되고

●性慾이減退되고 手足과下焦가恒常濕冷한분

●消化不良 체증 속병으로 고생하는분

●神經이衰弱하야 머리가묵업고 四肢가 勞困하고 貧血이甚한분

●肺가不足하야 活氣가업고

●形容이蒼白하고 全身의 元氣가 不足한분은 早老할 症狀이요 長壽못할 症狀이오니 一日速히 世界的補血强壯劑 百補丸을服用하여 完全하고 씩씩한 靑春의 所有者가 되시요

◎나무가마르려고할때에 肥料와 물을주지아니하면 그나무가어더케됩니가

◎사람이性慾이줄고 氣力이업고 勇氣가나지아니하는때에조흔 補藥을아니쓰면 마르려는나무에 물아니준것갓치 悲慘하게됩니다

神人道師 葛玄眞人의秘方藥

補陰補陽補腎補肺補心補腦補脾補胃補全身百補不老更少年仙藥

根本的의補陰補陽强精强筋強骨借力·平生無病健康長壽劑

百補丸

孫基禎은世界第一!

몸만튼튼하면 무엇이나못할것이업다 弱한사람은爲先 世界的强壯劑百補丸을쓰시요

世界第一紀念

●獨逸서開催된萬國聯合大運動會에서孫基禎이一等! 이榮光、이名譽를紀念하고 祝賀하기爲하야 獨逸에는 孫君의銅像이서고 朝鮮에는 紀念體育館이發起되고

●日本政府는 一千萬圓의 保健費를豫算하는等 健康問題로 天地가振動하는이때에

●最高의健康劑 百補丸本舖 平和堂株式會社로서는 同胞의 健康을爲하며또

●이世界的名譽를 慶祝하기爲하야 百補丸十圓分 一劑사시는분께(拾圓包半劑入) 一箱式을 無料添呈하기로하얏사오니 勿失好機하시고 남보다 먼저 速히 注文하시요 一萬人이차면 無料進呈은 中止하게됩니다

●注文書에는必히 祝賀特賣注文書 라고明記하시요

百補丸을쓰면 무엇이나 所願成就

藥價 一劑特價十圓 實用二十圓

[illegible]

京城府堅志町(五ノ一) 振替 五番 電光六三二番

●百補丸은 昔日에난 特別한 貴族兩班 만히쓰던 秘方補藥인데

●現代에난 누구던지 自由로 쓸수잇게 되엿다

平和堂株式會社藥品部

十六歲少女 警察에 哀訴

칠일아침동대문경찰서에는 한소녀가와서 가긍한래도로 애소를 하고잇섯는데 그사정을 드러보건대 소녀는 부내창신정(昌信町) 산(山)八 구칠성(具七星)(三七)의집에잇는 리필례(李必禮)(一六)로 지금부터 칠년전고향인 황해도서흥(瑞興)에서 현재남편에게 삼십원에 팔리어 온동으로 처음에는 밋며누리로 투가다는 약속이엿든것이 일년이지나지못하야 소녀의나히 불과십세때부터 구칠성은혼인을 강요하야오는터로 작금에 이르러는 그정도가 피도함으로 소녀는 참다못하야 그와가티경찰에 애소하기에까지 이른것인데 동서에서는 남의집가간사에까지 참여할필요는 업다하야소녀를 위선돌려보낸후 구칠성을 소환하야타일러보내엿다한다

新府民의 非難의 的 寄附轉學制廢止、

多額寄附金賦課는 無理라고 道에서도 말성이되여改善

【永登浦】 경성부에서는 행정구역확장후 새로히 지방에서 전입하는 신부민자제의 입학전학에대하야

一學年에는 百六十圓以
二學年에는 百四十圓以上
三學年에는 百二十圓以上
四學年에는 百圓以上
五學年에는 八十圓以上
六學年에는 六十圓以上

이란다액의기부금을 부과하야이것을 납입치안는사람의게는 보결을 너흘만한자리가 잇드라도 절대로 입학이나전학을 허가치말나고 부내각보통학교장에게례규로써 지시하엿기때문에 지방에서 경성으로전입한 신부민들은 부당국에대하야 크게불안과불평을 품고비난이만튼중 그후도당국에서는 이문제를 중대시하야 말성이되여가지고 경성부의 잘못된교육제도를 지적개선케한결과 드듸여 얼마전에 긔부금납입제도는 폐지되엿다는대 이긔부금수입문제에대하야 더욱 의심되든점은현금을 납부한사람에게 아모조희에나 계원이가령수룹발부한후 정당수입영수증은 한달이나 넘어서 보내주든등의 수입수속이 불철저한 것으로보아 떠한층 말성이만헛다고한다

求職就職이激減

北朝鮮景氣에吸收가되여서 閑散한京城職業紹介

경향을 물론하고 굶네! 못먹네! 하고 떠드러대이는 이때에 그들에게 무엇보담 일자리가필요한것은 더말할나위도 업는일이지만 더구나 금년은 삼남(三南)과 강원도지방의 대수해로 말미아마 직업을 차저서 서울로 몰려올라오는 남녀들이 날로 느러가는 현상이어서 당국자로서 큰관심을 끄을고 잇는터인데 이제 지난구월한달동안 경성부직업소개소에서 취급한 업적(業績)을보면 사람쓰겟다는사람 일천열혼세명과 직업을 찻는사람수 일천이백마흔두명중에서 소개해준것이 륙백아흔다섯명에 취직된사람이 사백스물한명으로 지나간해 가튼철에 비하여 사람구한수 일흔네명, 직업 구한수 백쉬흔여섯명, 소개삼백여든여덜명에취직 삼백쉬흔여덜이 각각 줄엇다한다.

이와가티 직업소개소의 취급건수가 주러든 큰 원인으로는 봉급으로나 그밧게 여러가지 조건이 서울보담 낫다고하는 북조선지방이나 만주국등지로 일자리를 차저가는사람이 느러가기때문이라한다.

九月中屠獸 三千九百頭

구미붓는 가을이다 식욕이왕성하여저서 무슨육지이든지 만히 먹히게되는것이 가을철이다 떠욱이 점점 서늘해지고 추워짐에따라서 고기도 만히먹히게된다 지난구월한달동안에 경성부도수장(屠獸場)에서 희생된소 도야지 말의 수효는 삼천구백이십오두로 이것은거의 전부가 경성부민의 입에 드러간것이라고볼수잇다 그가운데서 소는이천사백륙십오두(가액은 이십칠만칠천이백구십일원)도야지는 일천사백사십팔두(가액은 삼만삼천입백륙십륙원구십전)말은 십이두로(가액은삼백륙십원) 그총액은 삼십삼만 팔백삼십칠원 구십전이나된다 작년구월에 비교하면두수는 일백륙십이두나 주러젓스나 가액은 삼만륙천사십일원이십전이나 더만헛다 이것은금년은 작년보다 소나도야지갑시떠 비쌋기때문이라한다

水道栓凍結團束

여러가지方法을利用하야 今年은萬全을必期

경성부 수도과(水道課)에서는 금년겨울에는 수도가 얼지안토록 미리 단속을 하기로되엿다한다 작년겨울에는 부내에 수도의 피해가 약삼천건에 달하야 부민의 음료수공급에 큰 곤난을 일으켯는데 금년겨울에는 이와가튼 사고가 생기지 안토록 연구중이나 이미 설치되여잇는 수도관(水道管)에 대해서는 갑작이 적극적으로 개선하가는 어려우므로 신설수도에대해서는 어러붓지안토록 방지공사를 하고잇다

▲수도철관(鐵管)을 지하에매몰하는 기피를 종래에 넉자로하든것을 녀자다섯치로 할터인데 이것은 작년겨울에 고장이난것의 대부분은 철관이 어러부터기때문으로인 공작이다

▲수도마개가 어러붓는것은새것을 가라너어서 개량하는중이다

▲『메롤합(盒)』을개선하야 집(藁)뭉치를 너어서 외긔(外氣)를 차단한다

▲전류(電流)로 말미암아 철관안이 어러붓는것을 녹이는해빙법(解氷法)을 쓰고

▲『엔진』의 조종으로 증긔통관(蒸氣通管)의 해빙법을 쓴다는것등인데 긔설의 수도관에대해서도 얼기쉬운 장소와 수선을 해야할것은 개량공사를 하기로되엿다한다

咸北警察部員 仁川서大活動

妓生等을召喚調査

【仁川】 지난 륙일오후에 함북(咸北)경찰부개목(皆木)형사외일명이인천에와서 칠일오전오시경서경정(西京町)김모(金某)(三○)라는 청년의 가택을수색하는일방 동오전십시경에는 김홍도(金紅桃)(二○)최월화(崔月花)(二○)라는 기생등을소환하야 형사실의문을 굿게닷고 출입을금하며 엄중조사중이라는대 사건은 극비밀에 부침으로 자세한것은 알길이업스나 전기김모에대한 행동을조사하는것이라 그추이가 가장주목된다한다

父母의罪로 漏籍된少女

부모의죄로 호적(戶籍)조차 업서 취직을 못하고 거리에서 방황하다가 마츰내 라리의 함정에서 헤매는 소녀—륙일 오전이시경 종로네거리로 호긔잇게 다니는 자동차속에는 이명의 『모던뽀이』가 십칠세가량된 어여뿐 소녀를 가운데 노코 사랑의 『드라이브』를 하고잇섯다 때마츰 순사중이든 종로서원이 발견하고 그들의 행동이 수상하므로 전후사실을 조사한결과 그소녀는 자칭 부내 관철정(貫鐵町)사는 장학선(張鶴仙)(一七)으로 세살때에 그아버지는 버리고 그어머니는 다른곳으로 시집을 가게되여 홀로남은 그소녀는 이래 여러사람의 손을 거치어 부모의 얼골조차 모르고 자라오게되엿스나 그가 철들으로 타고난 어여뿐 얼골에 취하야 여러 젊은 사나히들의 유혹도 만케되엿는데 그는 자활의 길을 밟고저 기생이나 녀급이 되려고 하되 경찰당국에서는 호적(戶籍)이 업는 관계로 수속상 허가(許可)가 되지아니하야 그는 마츰내 무허가로 기생행세를 하여가며 이사나회 저사나회들에게 갓잔 사랑을 끕어서 생활을 하게되엇다 그리하야 그날밤은 그대로 돌여 보내엇는데 그런 녀자를 방임하면 개인의 생활도 문제려니와 사회풍긔상 상서롭지못함으로 칠일은 동서보안계에서 호출을하야 한번더 세밀한 조사를 한후, 기생이 꼭 되겟다고 하면 경성부에 교섭하야 독립호적이라도 만들어 주어 안전한 생활을 이어가도록 하려하엿스나 전기 주소에서 수개월전에 어데론지 떠나고 말엇다함으로 그의 거처를 찻고 잇는중이라 한다

死亡率은八倍!

傳染病에弱한日本內地人 龍山署管內의統計

부내 룡산서(龍山署)관내에서 지난 정월부터 구월삼십일까지 발생된 각종전염병환자의 발생수효를 보면 총계 사백입흔다섯명으로 그중 일본내지인이 삼백여든아홉명에 조선사람이 여든여섯명이라한다。

이것을 가지수로 난호아보면 장질부사가 일본내지인 예순아홉명에 조선사람이 마흔한명, 적리(赤痢)가 일본내지인 백마흔세명에 조선사람 열아홉명, 『티프테리아』가 일본사람 쉬흔명에 조선사람 스무명, 성홍열(猩紅熱)이 일본내지인 마흔네명에 조선사람 한명, 『파라티프스』가 일본내지인 열명에 조선사람 한명, 그리고 그밧게 병이 일본내지인 비명에 조선사람 다섯명등이라한다

이것을 다시 죽은사람별로 보면 일본내지인이 장질부사로 네명, 적리로 열한명에 『티프테리아』로 세명등 도합 열여덜명이고 조선사람은 오직 장질부사로 두명밧게되지안케죽엇다한다

그리하여 일본내지인은 종발생수에잇서서 조선사람보담 네곱이칠신강하고 죽은사람이 여덜이칠신터한폭이라한다

海軍映畫會開催

해조사상보급의 목적으로 해군협회조선지부와 경성학우영화회의 공동주최로 구일밤 일곱시에 부민관대강당에서 해군영화회를 개최할터이라한다 입장료는 십전이다

住民卅餘戶에對하야 廉價로地垈提供

仁川中人墓地問題解決

【仁川】 인천부서경정(仁川府西京町)중내리(衆內里)일대에 삽십여호의 대지문제로 엘시는렴인천적으로 중대문제화하고잇다한은 루차보도한바와갓거니와 동지대는 구한국시대에 중국인공동묘지로써 제정되여엇든것을 증가하는 가옥과한가지 맛침내동지대의묘지를 철거케하고 중국령사관에 불하케되엿든것을 금번불에 본연로부터 동령사관에 향하야 분매도한다는풍설이잇서 주민측의 할매도하야주기를 수차교섭하엿스나 동령사관에서는 맛침내주민측의 의사를 일축하야바리고욱정(旭町)유군성(劉君星)씨에게매도하야 바리고말엇다 이를듯지한 주민들은 동령사관의 태도를 비란하는동시에 이뜻을들어 인천경찰당국에 진정케되엿든것이다 지주유군성씨는 이소식을듯자 즉석에서 주민에게 한하아는 시가 이십 삼사、원하는곳을 십오원에분할양도하얏다하야 주민측에서는 물론 일반부민간에서는 동씨에대한칭송이 자자하다는대 동씨의미거는금번에한한것이아니라 변말을당하면 항상 빈한한 가정을위하야 백미백여석을 희사한사실을 비롯하야 실로 인천사회에 잇서서는 다시업는 독지가라한다

岸氏、赤波兩氏特志

부내본정(本町)일정목 산안위차랑(山岸爲次郎)씨는 그의죽은 어머니의 상기(喪期)때를 당하야 칠원에 돈백원을 시내청운정(淸雲町)적파일이(赤波一二)씨는 그의죽은안해의 상기를 당하야 금일백원을 칠일에 각기 경성부방면사업조성회(方面事業助成會)에 기부하엿다

秋季種痘

경성부에서는부내 각처에서 계속하야 종두(種痘)를 실시하고잇는데 팔일에는 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 사

仁川商品見本市 販賣高七十餘萬圓

大盛況裡終幕

【仁川】인천상품견본시는 예정대로 작륙일로써 막음닷엇다는데 전후 이일간총매상고가륙십륙만칠천원에 달하엿다는바작년도 견본시매상고 사십오만원에 비하면 약이십여만원의 증가를 보이엿고 참회자도 이와한가지증가되야 륙백오십명에달하엿다한다

森內務課長辭任

경성부삽부제실시에따라 총무무장은 삼내무과장(森內務課長)이 사무취급으로 되여잇든바삼씨는 오일에 사임하엿스므로륙일부로 감서(甘庶)부윤에게 사무취급의 사령이 나렷다한다

東大門女普運動會

시내종로륙정목 동대문녀자보통학교(東大門女子普通學校)에서는 팔일아츰아홉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추긔대운동회를성대히 거행한다는데 종업생 학부형은 물론 일반의참관을 환영한다고 한다 오후세시폐회예정이다

京城府會召集

경성부에서는 경성부회의원십오명증선에 따르는세비(歲費)및경성부삽부제실시에 따르는설비비(設備費)기타를 추가예산으로 요구하기위하야 불원간에 신출의원 십오명을합한 부회의를열고 결의를할터이라한다

今日의運動

▲籠球=朝鮮體育會主催 第十七回 全朝鮮綜合競技大會 籠球 第一日 午後二時入場式 第一回戰 漢城商業對中央高普 善隣商業對中等公民 儆新學校對協成實業 養正高普對大東商業 鍾路青年會後援코-트 (觀覽料 一般二十錢 學生十錢)

第三回
商工業者丹楓노리大會
場所 金剛山、時日 十月十七日十八日(十月十六日午後九時四十五分京城出發 同十九日午前七時二十五分歸着)
會費 十圓 人員 百人(男子에限) 申請期 十月十二日
主催 朝鮮日報社

雙虹舞 【8】

方仁根 作
金奎澤 畫

虫先生 (八)

은명은 벽에 부처노흔 나뷔들을 보고

『나뷔도 참 별별 이상한것이 다만하요』하고 서서돌아가며 구경하엿다。과연 그나뷔들은 혹은 크고 혹은적고 빗갈도 가지각색이엇다。

『만쿠말구요 나뷔만해도 수백종류는될니다』

『저나뷔들을 어떠케 잡으셧서요』

『다니다가 이상한나뷔가 잇스면 쪼처가서 잡지요』

『그러케잘 잡혀요』

『어듸가요 잘잡히는놈도잇지만 어떤놈은 잡으려면 훅작 날러버리고 기가막힐때가 만치요 어떤때는 진종일이나 놉흔나무에안저서 영 날르지안흐면 그놈이 날르기를 몃시간이나 기다리는적도잇는데 멍하니 처다보고 몃시간이든지 서서잇는것을 누가보면 미친사람이라고 할것입니다』하고 광훈은 웃엇다。은명도 그생각을하니 웃음이나오는것을 손으로 입을 가리웟다。

『그보다도 더 기맥힌것은 아신동한나뷔를 만나긴햇는데 이놈이 안젓다가는 날르고 해서 산으로 들로 작구 가면 그저 나는 허둥지둥 밧길 논길로줄취한 사람처럼 몃십리든지 딸아갑니다 한번은 글세 나뷔를 잡으려 김흥산중으로 몃십리를 딸아들어갓는데 잡고보니 어느새 해가 뚝 넘어갓겟지요칸칸한밤에 모르는 산길을 헤매며나오느라고 죽을고생을 햇지요』

『참말 끈중채집도 여간 어려운일이아니에요』

『그럼요 세상에 쉬운일은 하나도 업지마는 이일도 첫재열성 둘재 모험이잇서야 합니다 그러케 몃십리를 딸아갓다가 잡지못하고오면 눈물이 나도록 분하지만 잡고만보면 춤을추고십지요 하여튼 어려운대신 취미도 여간 만흔게 아닙니다』하고 광훈은 신이나서 말하엿다 다른때는 뚱하니말을 잘아니하다가도 이 버러지에관한 이야기만 나오면 신이나서 말을 청산류수로 하는것이엇다。광훈은 칭을 뭇거삼키고

『나뷔를 한거번에 만히 잡고도 이상한나뷔를 만히 발견하라면 이러케도 합니다。아마 이것은 내가 혼저 실험해본것인데 상당히 효과가 잇든데요。여름날에 산속이나 들판으로가서 불을 환히 켜고 섯스면 이상한 나뷔와 버레지가 날려오는것을 잡지요 몃해를 해보앗는데 낫에는 도무지 못본것을 만히 잡엇습니다』하고 말하니 은명은 눈을 깜작깜작하고 듯다가

『참말 그러켓서요 퍽재미도잇겟서요』하고 대구를 하엿다。

『재미잇구말구요 불빗을 따라 펄펄날어드는 것이란 여간취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혼자는 무섭겟서요 기픈밤에 산속에나 벌판에서 그려케 하자면…』

『처음에는 좀 무섭드니 재미가나고 열중하니까 무섭지안터지든데요……내가 무섭다는것보다 어떠사람이 지나다가 보고 깜짝놀래기도 하고 멀리서보고 독가비 불이라고 하엿다는일은 당해보앗습니다』

은명은 자기로서는 도저히 그런일을못할것가티 생각하는 광훈을퇴대 불시 숭배가되어엇다。저런남자면무슨일이나 그만치 하리라하는미듬성이 생기엇다。

은명은 더이야기 하고십지마는 말이 노히지안허 안젓슬수가 업섯다。은명은 벌떡 이러낫다。광훈은 몹시 섭섭하엿다。그들은 무슨 뜻업는말 자긔의가슴에 서린말을 서로하고십헛스나 그것을 못하엿다。그사랑의 열정이 가슴에서 터저나와 입안까지 나와서 숨으로는 토하엿지마는 말로는 발표하지못하엿다。그안타가움이 그들의 얼굴에는 력력히 나타낫다。그들은 다른말은 전연스럽게 할수업지마는 그사랑 고백만은 하기가 몹시 어려웟다。도회에서 달아먹은 청년남녀가트면 유섭기에서 나오듯이 연곡하듯이사랑을 서로 무르익게 말하겟지마는 그들은 그러케 못하엿다 못하지마는 사랑은 순정이요또 거웟다。그들은 한집에 잇지마는 멀리 서로 리별하는것처럼 섭섭하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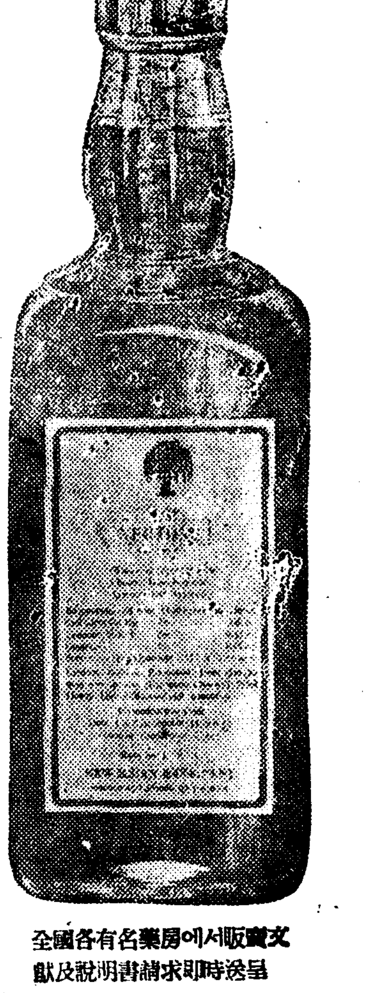
은명이 나간뒤에는 광훈은무엇에 취한듯 멍하니 안저잇섯다。

『은명은 영리하고도 아름다운 여자이다』하고 광훈은 속으로 부르지젓다。

『내 안해가된다?편찬켓지』

『암 편찬쿠말구!』

이러케 광훈은 자문자답하엿다。


全國各有名藥房에서販賣文獻及說明書請求卽時送呈

平壤基督病院에서도

버드나무票 네오톤 處方이最多

平壤基督病院은 宗敎的使命에서 至聖至純한 人類愛의發露로 創設以來長久한 歷史와 博愛的仁術에依하야 우리朝鮮人士에게 끼친罪恩과功獻이야 말로 偉且大한것으로 其趣旨와實績에對하야 우리는 오로지 感激以外에 아모것도업다。

現在數氏의 醫學博士와 十餘名의 醫師의充實한 陣容으로써 더한층 이至誠至純한 使命遂行에精進하는바 過去에잇서서 이基督病院은本行發賣品世界的强壯劑 버드나무票네오톤NEOTONE 의 眞價를實認하야 實로數千폰드의 네오톤 을 處方한것이다。

그러나 近者本 네오톤 의 效力卓絶에因하야 廉價의 模倣品이 簇出함을따라서 經濟力이그러케 만치못한분에게는 버드나무票네오톤 代身에 廉價한 模倣劑를쓰게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本 네오톤 을 服하실때는 貴下가 信任하시는病院이나 醫師에게 버드나무票네오톤 의 眞否를 問議하시든지 或은藥房에서 本 버드나무票네오톤 包裝을 確實히檢視하신後에 購得하서야한다。

要컨대 우리는 무엇보담도 信賴할만한 仁醫를차저서 仁醫가 信用하고 推奬하는品質과 效力이 優秀한 藥劑를써야한다。

네오톤 直輸入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府西大門町二丁目七
大連市被河町一九
上海圓明園路一六九

産業

東海岸에鰮景氣 秋漁는昨年보다活況 製品도大幅으로昻騰

東海에잇서 全然 不振으로 終始한 東海岸의 今年鰮漁況은 秋漁에入하야 期初變態氣候에 悲痛中이든바 九月末以來 鰮漁 活氣를呈하야 咸北 咸南共히 九月下旬十月上旬은 前年同期의 二倍增의 豊漁로 게다가 製品의 四割高로 不振金錢을 全然 一掃하게되엿다

平壤九月貿易狀況

【平壤】平壤稅關에서 調査한바 九月中 貿易狀況은 다음과갓다

▲輸出 一八六二、八三六圓

重要內譯

砂糖 二四〇、一五〇圓

準備 九、一四九圓

▲輸入 六二五、三八四圓

重要內譯

자바産玉蜀黍 五九八、二九三圓

人蔘 三、四五三圓

毛織物 二、七七七圓

鐵 二、五八八圓

木材 一、四一一圓

▲移出 五、四二九圓

▲移入 一、一六一、五五九圓

重要內譯

砂糖 二五〇、〇〇〇圓

毛織物 一八一、五一三圓

綿織物 一六一、七七三圓

人絹 三三六、一九六

種緬羊輸入 一頓挫豫想 濠洲에서制限方針

國策的意義를 가진 緬羊增殖은 旣報와 如히 明年度에 旣定計畫의 一大擴充을 圖하야 明年에 六千頭의 大量輸入을 圖할 豫定이든바 最近 總督府에 達한 情報에 依하면 濠洲로부터의 種緬羊輸入이 或은 不可能하게되지안흘가 豫想되어 關係方面에 一大衝動을 주고잇다 即 過般神戶兼松商店으로부터의 入報에 依하면 濠洲에서는 對濠通商問題도잇고 日本의 種緬羊購入이 日本內地 朝鮮을 合하야 만흔 數量에 達함으로 그輸出制限의 論議도이러나고잇는듯하야 大量購入은困難하다는것이다 濠洲外로서는 新西蘭이 잇스나 運賃其他의 關係上 濠洲와如히 順調로되리라고 豫想되지안허 이濠洲로부터의 輸入梗塞을 念慮는 深刻히 關係方面에 憂慮되고잇다

慶北秋繭出廻 十萬貫을突破

【大邱】慶北道의 秋繭共同販賣는 連日 激增하야 廿八日은 一圓十萬貫을 突破하엿다는데 그價格이 三十三萬三千四百五十一圓이라하며 各郡出廻高는 如左하다고한다

達城	一、八八三貫
軍威	一、三四〇
義城	二、六三一
安東	八、五六四
靑松	二、九七八
盈德	四、〇五七
迎日	六、七三六
慶州	三、五八九
永川	三、六九九
淸道	九七九
高靈	三、六六八
星州	一、二一五
漆谷	一、一六〇
金泉	七、六三〇
善山	四、三〇三
尙州	二九、八三二
聞慶	六、九七六
醴泉	一〇、六七二
榮州	三、八一三
奉化	三、六二五
計	一一三、四一四

大邱苹果에喜報 青森苹果暴風被害로 名古屋으로부터注文

五日慶北果物組合에 名古屋市中央市場 河屋本店에서 苹果의 產地 靑森이 今回의 大暴風雨로 四割가량 落果되엇슴으로 大邱苹果를 보내달라는 依賴가왓슴으로 同組合에서는 그輸送을 準備中이라한다 그러고 이번 靑森의被害로 因하야 朝鮮産苹果에 影響이만흐리라하며 特히 早生地方인 大邱苹果는相當히 高價가 豫想되는만큼 過般暴風雨의 被害도 多少緩和되리라고한다

大닉켈鑛 慶南서又復發見

朝鮮의 닉켈鑛은 曩者 忠北 咸南等에서 뒤를이어 發見되어 特殊鑛의 朝鮮內賦存으로 크게 期待되고잇는데 또한 이지음 慶南에서 닉켈鑛의 一大豊鑛이 發見되엇다 아는 慶南山淸郡下의 王山一帶의 斑糲岩帶에서 發見된것으로 닉켈含有는 二%乃至三%라는 優秀한것으로 이鑛脈의 分布도 從前忠北 咸南等과달라 相當히 廣汎한模樣이어 總督府에서도 期待하고 곳 特殊資源鑛物調査班의 飯塚技手一行이 現地調査次로 갓는데 右닉켈鑛發見은 業界에 센세이숀을 捲起하고잇다한다

米自營法施行協議

【羅南】咸北道廳 農務課에서는 五日午前九時半부터 道議會議室에서 米穀自治管理法施行에關한 協議會를 開催하얏는바 總督府에서 鹽田農產課長의 列席을비롯하야 道首腦部總出로 協議를 遂하얏다

江西棉花共販

【江西】江西郡農會에서는 例年과가티 棉花共同販賣를 지난二十三日부터 始作하엿다는데 今年에는 昨年에比하야 豊作으로豫想하고 잇스며 各地販賣場所와 價格은 如左하다고한다 (去二十六日現在)場所=江西 岐陽 咸從 甑山 沙三 價格 一等十六錢五厘 二等十四錢二厘 三等十一錢九厘 四等八錢八厘 五等五錢七厘 (西岐陽市價格) 一等十六錢四厘 二等十四錢一厘 三等十一錢八厘 四等八錢七厘 五等五錢六厘 (咸從 甑山 沙川 市場價格)

各國通貨現狀 (三)

伊太利

는一九二七年에 리라貨의 金純分을 約三分一로 減하야 金七九・九一一미리그람으로 定하고 同時에 金本位에 復歸하얏다。世界的不況、移民送金減少、軍擴等으로 財政經濟難에 陷하야 一九三四年五月에는 爲替制限令이나 純粹한 商業的必要에 基한以外의爲替取引은 모다禁止하고 同年十二月에는 伊太利銀行及 會社가海外에 有하는 債權의 一切를全國爲替局에 引渡할것 銀行券銀行手形、小切手、外國의 有價證券及 銀行券의 輸出을 禁하고 旅行者는 二千리라以上의 通貨를 國外에 携出하는것을禁하는等의 法令을 發하기로되엇다 一九三五年十一月廿七日 國內金買上價를 一八・五三%로 引上하고 一九三六年三月廿日의 法令으로 旅行者用리라는 平價보다 三一・六%値로 定하얏다 海外의 리라의爲替레이트도 平價보다 二二%가량下落하얏다。

伊太利政府가 佛國에 伴하야 平價切下를 行할런지 안할런지 不明하나 實情은 平價를 切下하야도 自由한 爲替 乃至 金取引을 復活할수잇는 狀態는아니다 그러고 이제 急히 佛國에 追隨하지안흐리라는 說도잇다

獨逸

도 伊太利와 거의 同樣의 立場에잇다

波蘭

은 金本位는 이미 오래前부터 名目에 끄치고잇스며 極端한 爲替制限으로 거의市勢를 維持하고잇다 그러고 法平價切下의 影響은적고大藏次官 라인下르트氏와如함은 馬克은 依然安定을 維持하리라고 말한다 그러고 一九二四年八月에 再建된 라이히스 馬克의 金純分은 純金의三五八、四三瓦로 定하고잇는데、獨逸이만히 使用하고잇는 封鎖馬克은 國內에서는平價로 通用하나、海外에서는 事實上四、五割의 割引이되어잇다

새로通貨單位로서 스로티貨가 確立되것은 一九二四年四月인데 그파리티는 一金磅에對하야 二五、二二스로티로 定하얏는데 스로티貨의 動搖는 一定치안코 九二六年中에는 五五스로티까지 低落되엿슴으로 一九二七年十月에는파리티를 一磅에對하야 四三・三八스로티까지 引上스로티貨의引下하지안흐면 안된다 그러나 폴랜드政府는 昨年四月에이르러 爲替管理를 斷行하고 폴랜드의 外貨의 購入 資金의 對外送付 金及金貨의購入 外國商社에對한 資金奇托及 크레디트設定과 融資에關하야는 一切폴랜드銀行이 設한特殊爲替局의 許可를 要하기로되엇다

法切下前의歐洲各國通貨

本位貨		爲替管理(年月日)	金本位停止(年月日)	平價切下(年月日)	平價切下率(%)	本位貨純分(瓦)	對米平價(弗)	對米時價(弗)
金本位國								
佛國	法	—	—	—	—	〇・〇五八九五	〇・〇六六三	〇・〇六五九
和蘭	法盾	—	—	—	—	〇・六〇四八〇	〇・六八〇六	〇・六七六九
瑞西	法	—	—	—	—	〇・二九〇三二	〇・三二六七	〇・三二四五
아루바니아	法	—	—	—	—	〇・二九〇三二	〇・三二六七	
爲替管理國								
獨逸	라이히스馬克	三一・七・一三	—	—	—	〇・三五八四二三	〇・四〇三三	〇・四〇二七
폴랜드	스로티	三六・四・二六	—	—	—	〇・一六八一七九	〇・一八九〇	〇・一八八〇
헝가리	펜게	三一・七・一七	—	—	—	〇・二六三一六六	〇・二九六一	〇・二九四六
불가리아	레브	三一・一〇・一五	—	—	—	〇・〇一〇八六九	〇・〇一二二	〇・〇一二二
伊太利	리라	三四・五・二六	—	—	—	〇・〇七九一九〇	〇・〇八九一	〇・〇七九〇
西班牙	페세타	三一・五・一八	—	—	—	〇・二九〇三二三	〇・三二六七	〇・一三六七
유고	디날	三一・一〇・七	—	—	—	〇・〇二六五二五	〇・〇二九八	〇・〇二二九
루마니아	레우	三二・五・一七	—	—	—	〇・〇〇九〇〇〇	〇・〇一〇一	〇・〇〇七三
平價切下國								
白耳義	베르가	(a)三五・四・二八	(b)三五・三・三〇	(b)三五・三・三一	二八・〇〇	〇・一五〇六三二	〇・一六九五	〇・一六九一
룩센불크	法	(a)三五・四・二八	三五・三・三〇	三五・四・一	一〇・〇〇	〇・〇四三二九三	〇・〇四八七	〇・〇四二九
墺國	志	(a)三一・一〇・九	—	三四・四・三〇	二一・二〇	〇・一六六六六七	〇・一八七五	〇・一八七六
체코	코루나	(a)三一・九・二六	—	三四・二・一七	一六・六七	〇・〇三七四七五	〇・〇四二一	〇・〇四一〇
단치히	굴덴	(a)三五・六・一三	—	三五・五・二	四二・三七	〇・一六七九七九	〇・一八九〇	〇・一八八〇
通貨下落國								
米國	弗	(a)三三・三・六	三三・三・五	(b)三四・一・三一	四〇・九四	〇・八八八六七一	一・〇〇〇〇	一・〇〇〇〇
英國	磅	—	三一・九・二一	—	—	七・三二二三八二	八・二三九七	五・〇一九七
日本	圓	三二・七・一	三一・一二・一三	—	—	〇・七五〇〇〇〇	〇・八四四〇	〇・二九三九

스털링블럭諸國을除外 a)는爲替管理停止 b)는暫定 c)는本年六月中의平均

鳳翔生薑 最盛出廻期當到

【全州】藥用과食用으로 吾等日常生活에 업지못할 生薑이 또한 全北의 特產名物의하나이다 年產十五萬圓以上으로 重要產地인 全北完州郡鳳東面及鄰接高山、參禮、龍進三面을合하야 耕地面積百八十三町步에 一千三千餘戶의 耕作戶數를 가지고잇스며 上記各面民의 七割은 播種期는 每年五月中旬頃에 種薑(舊薑)을 바려다 마늘심듯 月餘가되면 發芽되어 新薑幹枝가 適當히 發育되며 地下에 播種해두엇든 種薑은 六月下旬頃에 採取하야 또다시 食用으로使用하며 新薑最盛販賣期는 每年이때인 十月初旬부터 十一月末까지 若二個月間이라고한다 이제 鳳翔生薑의 沿革을 아는대로 紹介한다면 距今約三百餘年前에 完州郡東面에 試作을해보앗는데 耕作者는 一時 農耕狀態에 陷하엿섯고 其後 忠南靑陽에서도 試作을해보앗스나 地質關係인지 好成績을엇지못하엿스나 一帶에 試作을해보앗든結果 意外에도 成績이 良好하야 今日의 成果를 가지게 되엿다 方今 各地에서도 栽培中이나 甘味와 水分이적고 薑心이잇서서 食料品으로는 不適하다 그러나 鳳翔生薑은 甘味와 水分이만코 薑은 한오락이도업서 食用에 가장適當함으로 採取期에 드러서면 鳳東面一帶에는 大小賣商으로 大雜踏을 일우게되니 生薑이라면 반다시 鳳翔生薑을 聯想하게쯤 되엇다 그런데 鳳翔產業組合에서는 昨年부터 薑粉을 製造하야 (一斤約一圓五十錢가량) 販賣中이라는데 用途는 粥에 代用되며 感氣患者가 藥代用으로도 使用한다고한다 今年부터는 軟薑飴를도 만드러 販賣에 供하리라고한다 (寫眞은 收穫을 기다리는 生薑밧)

本社接受水害救濟品 （十月七日現在）

物品合計 十六萬四千一百六十點

穀物合計 四十五俵 一斗五升

大阪支局經由 衣類 一〇、八四五點

大阪市西成區 金德祐氏取扱分 朝鮮佛敎布敎所

白永燦 ▲金南守 高三三 ▲金奉鉉 金中傑 ▲金壽洙 徐鎭澤 ▲申亨植 郭性南 ▲田成吉 朴百植 ▲李守永 林必守 ▲權相範 金東守 ▲鄭信鎬 南駿宗 ▲許炳烈 洪仁玉 ▲愼喆寶 崔在鏞 ▲金亨植 高贊洙 ▲李創岩 朴奉七 ▲金元基 安應元 ▲金奉玉 金長祖 ▲金文培 金有煥 ▲金仁根 金相鎬 ▲權又珍 崔成雲 ▲崔宗弼 金壽連 ▲金吉斗 鄭永龍 ▲崔宗吉 周判龍 ▲崔秉斗 馬福道 ▲吳宗煥 朴相南 ▲李公三 梁哲熙 ▲河敬五 李正國 ▲韓文道 尹性根 ▲洪工南 鄭海龍 ▲金希烈 明東律 ▲安泳龍 安永昌 ▲李太水 申澤模 ▲李承祐 鄭容守 ▲林永根 朴只漢 ▲金學明 金鍾大 ▲金一潤 朴陽基 ▲姜容圭 姜敎元 ▲徐仲寶 河允九 ▲鄭敬京 金東順 ▲權氏 金己道 ▲李承錫 金奉奉 ▲金化寶 方東文 ▲金圭煥 金景桂 ▲金汝玉 李正植 ▲李順福 金小兒 ▲朴奇德 金德祐 ▲李五辰 宋順伊 ▲韓元壽 金如熹 ▲金花松 李月文 ▲安千洙 安萬祚 ▲任萬順 召雲蘭 ▲任昌化 金玉生 ▲金明今 柳致玉 ▲康順培 李在仙 ▲夫順培 吳在仙 ▲康福順 梁成祚 ▲高萬年 金京順 ▲李附堂 鄭達伊 ▲朴淸龍 金其浩 ▲任德壽 任連壽 ▲姜允寶 金宜煥(母) ▲韓在淑 康宗洙 ▲吳基化 高雲日 ▲林基奉 金珠燁 ▲權正文 宋福順 ▲張之順 姜古岳 ▲金正文 金草子 ▲權三三 大開敎 ▲金基日 康順禮 ▲孫氏 金喜文 ▲高平俊 金幼秀 ▲朴峯伊 金世連 ▲李周濟、高致生 金奉洙 ▲高在生 大佐元 ▲金良心 金美順 ▲張元善 金舞玉 ▲宋基炫 宋仁七 ▲吳元周 鄭氏 ▲梁才聖 吳根約 ▲洪成玉 金永灘 ▲高明雲 朴漢國 ▲高太生 高基玉 ▲張壽生 朴新祐 ▲鄭炳出 金順玉 ▲高雲鶴 姜男成 ▲大秉連 金正運 ▲金晩玉 金明鎬 ▲金祥玉 宋한넘 ▲申氏 大己生 ▲朴氏

大阪市南區南桃谷町及田島町方面(鄭達勳總會長金昌榮三千萬取扱)

韓彦柱 ▲崔榮心 金貞淑 ▲洪日福 康淑淑 ▲金幸善 張洪鉉 ▲崔鶴飛 裵國順 ▲金五生 金時鎬 ▲朴明善 任淑子 ▲呂丰萬 金志洙 ▲鄭達勳 姜基玉 ▲張福順 高文玉 ▲金任順 李仁弘 ▲高在雲 高順伊 ▲金大容 徐宗良 ▲任在順 張公保 ▲姜主恩 白順德 ▲高尙主 趙德玉 ▲姜年辛 金甲生 ▲文貞善 李斗璇 李彩植

高貴亨 ▲金龍伊 姜先恭 ▲宋德先 高任兒 ▲高明順 康淡洙 ▲金玉順 高昌鎔 ▲高一一 康性京 ▲玄炳祚 文勳伊 ▲高一 全容植 ▲金暻順 許玉鍊 ▲高秀基 姜大彦 ▲宋基祥 梁明春 ▲高瀛汶 朴正倍 ▲申永熙 梁奉順 ▲申斗順 金甲山 ▲文九善 文奉玉 ▲朴東順 高成雲 ▲朴井伊 康良淑 ▲朴貞伊 千鳳洙 ▲文成弘 梁永春 ▲高八龍 文在能 ▲金玉蘭 元茂生 ▲邊善燦 高順花 ▲全淑伊 李昌淑 ▲柳春白 張辛生 ▲金庚萬 金玉順 ▲金乙女 金甲生 ▲梁三壽 鄭秋景 ▲李汪順 姜有石 ▲高昌夏 姜炳齊 ▲邊仁奎 金辛現 ▲秦年洪 沈炳燮 ▲高官八 文秀蘭 ▲金啓中 金永信 ▲康裕熙 金甲生 ▲姜茂出 金禮水 ▲姜明立 梁英春 ▲洪京錫 朴蔣有 ▲金永信 權道道 ▲宋奉鉉 金京洙 ▲金泰大 梁辰福 ▲金在玉 文在秀 ▲金文洙 梁扶燮 ▲康戊奉 李昌夏 ▲高景卓 金金山 ▲文昌守 金永玉 ▲李起春 全榮浩 ▲高吉弘 金谷宣 ▲高昌用 金丁鳳 ▲李順完 大順斗 ▲李順花 梁了生 ▲高斗潤 洪鍾寶 ▲梁君現 高利潤 ▲金德七 秦成淑 ▲康重熙 康寬熙

大阪朝留學生救援會取扱

「가다빵」六千三百個 內譯

關西大學 日本大學 北陽商業 浪華商業 日新商業 興國商業 堺商工靑年 京阪商業 城東商業 成器商業 關西甲種商業 大阪中學 上宮中學 浪速中學 今宮職工 大正小學校 道修小學 浪華商業 關西鐵道 港南 高等科 浪花高等女學校 小學 高等科 우이미나 女學校

尼崎市築地町方面阪神消費組合取扱 (唐木)

梁汝立 三〇尺 ▲姜仁石 高洪基 ▲申毛得 梁以善 ▲申正奎 女成學 ▲金權熙 李奉圭 ▲曹米雲 魏萬吉 ▲金龍鶴 張仁玉 ▲朴世日 金在壽 ▲崔萬用 魏啓泳 ▲黃杏起 李興實 ▲金解燮 李敬中 ▲徐炳淑 金局良 ▲林正奎 朴成洙 ▲許仁模 金鎭萬 ▲崔潤老 金武出 ▲白點洙 朴淑奉 ▲姜奉祚 金容泰 ▲朴老甫 金何洙 ▲朴相來 朴成植 ▲金貴祚 劉成植 ▲金敏述 朴阡俠 ▲朴南坤 金德萬 ▲朴在準 朴明賢 ▲梁希生 李鍾雨 ▲姜希奉 李點金 ▲金唐鎭 崔洛善 ▲羅光斌 金永動 ▲安在逢 金成業 ▲金龍洙 林正周 ▲李官瑞 朴在數 ▲權洪學 鄭慶學 ▲具明玉 鄭元相 ▲徐有世 魯道泳 ▲崔相洪 太道奉 ▲安敎仁 金應斗 ▲張小洙 安敎鳳 ▲朴文三 河致賢 ▲潘善文 金貴男 ▲姜文寬 梁武煥 ▲朴熙延 崔文善 ▲金周福 金奉涉 ▲李根鍵 增谷圭三 ▲李興鍵 張世連 ▲金啓雲 魯亥圭 ▲地堂仙市 國原仙吉 ▲崔龍雲 張三象 ▲小山金助 權重良 ▲朴在述 洪鍾萬 ▲朴必千 金谷俊 金斗玄

王仁植 五尺 ▲卞仁九 五尺 崔鳳植 五尺 ▲卞在九 五尺 金基洙 五尺 ▲金小介 五尺 安太平 五尺 ▲森本庄吉 五尺 申泳植 五尺 ▲韓光鎬 五尺 兪元植 五尺 ▲白自泳 五尺 申性洙 五尺 ▲李化彦 五尺 韓貴星 五尺 ▲李允植 五尺 李順雨 五尺 ▲孫漢鎬 五尺 申英祚 五尺 ▲徐貫容 五尺 李惠鎔 五尺 ▲蘇奉廷 五尺 梁會正 三尺 ▲金判實 四尺 金正勝 三尺 ▲姜相準 三尺 梁行默 三尺 ▲崔道乾 三尺 朴中俊 三尺 ▲申吉成 三尺 李相華 三尺 ▲宋元燮 三尺 張五奉 三尺 ▲朴致伯 三尺 姜次鳳 三尺 ▲張岩千 三尺 盧學潤 三尺 ▲李春德 三尺 洪奉設 三尺 ▲任相模 三尺 朱伯 三尺 ▲朴福出 三尺 李宇萬 三尺 ▲金庚洙 三尺 李斗龍 三尺 ▲黃福順 三尺 金二萬 三尺 ▲潘有信 三尺 李相杜 三尺 ▲徐壽伊 一尺五寸 崔洋海 二尺 ▲朴世進 二尺 崔永道 二尺 ▲朴老甫 二尺 金吉實 二尺 ▲林甲周 二尺 姜奉祚 二尺 ▲金相德 二尺 朴昌元 二尺 ▲朴貴來 二尺 金相九 二尺 ▲崔東澤 二尺 張鳳植 二尺 ▲崔永玉 二尺 鄭鎭寶 二尺 ▲金一福 二尺 李東今 二尺 ▲鄭斗柄 二尺 鄭雲集 二尺 ▲河又相 二尺 朴在傳 二尺 ▲林模甫 二尺 黃洙南 二尺 ▲金贊伊 二尺 崔仕俊 二尺 ▲金德元 二尺 洪順玉 三尺 ▲李弼求 二尺 金龍奉 二尺 ▲李雨淵 二尺 裵收人 二尺 ▲崔基三 二尺 黃錫周 二尺 ▲成奉彦 二尺 周南會 二尺 ▲四浦三代喜 二尺 安興洙 二尺 ▲金明南 二尺 姜明光 二尺 ▲朴中鎬 二尺 李岩于 二尺 ▲姜又生 二尺 金鏞泰 二尺 ▲尹正文 二尺 朴運來 二尺 ▲朴興錄 二尺 柳長洙 二尺 ▲文贊根 二尺 許石斗 二尺 ▲趙學九 二尺 劉在烈 二尺 ▲崔演汶 二尺 許丑福 二尺 ▲李正夏 二尺 申太龍 二尺 ▲西川喜一 二尺 魏述良 二尺 ▲金明七 二尺 大拔傳一 二尺 ▲陳石斗 二尺 張明律 二尺 ▲金達用 二尺 李萬述 二尺 ▲張鳳道 二尺 金道今 二尺 ▲姜止烈 二尺 姜容彩 二尺 ▲吳八岩 二尺 鄭德鳳 二尺 ▲金潤燮 二尺 朴貴文 二尺 ▲朱植 二尺 金德祚 二尺 ▲吳鳳伊 二尺 金完國 二尺 ▲鄭在敎 二尺 金漢斗 二尺 ▲潘又煥 二尺 徐炳德 二尺 ▲金龍鶴 一尺五寸 梁吉洙 二尺 ▲金正斗 一尺五寸 金鳳洙 一尺五寸 ▲李禹植 一尺五寸 朴靑龍 一尺五寸 ▲奉世源 二尺 吳興介 二尺 ▲潘長奎 二尺 崔變寶 二尺 ▲梶木勘兵衛 二尺 一勞働者 二尺 ▲楊麟甲 二尺 南川忠一 二尺 ▲林南奎 二尺 白智基 二尺 ▲潘根洙 二尺 宋應俊 二尺 ▲中原龜楠 二尺 黃二泰 二尺 ▲張點世 二尺 兪炳元 二尺 ▲南消成 二尺 丁伯彦 二尺 ▲朴必來 二尺 柳基彩 二尺 ▲孫學局 二尺 姜奉先 二尺 ▲鄭三鳳 二尺 崔成八 二尺 ▲金鳳洙 二尺 梁顯祚 二尺 ▲崔貴辰 二尺 許南伊 二尺 ▲崔洛道 二尺 盧外亨 二尺 ▲金三順 二尺 徐玉錫 二尺 ▲金福順 二尺 宋壽學 二尺 ▲金昌植 二尺 裵頭千 二尺 ▲李在成 二尺 李今宰 二尺 ▲韓奎煥 二尺 金又鎭 二尺 ▲安雲伊 二尺 孫根秀 二尺 ▲姜周尙 二尺 周三砲 二尺 ▲安敎奉 二尺 金鑛南 二尺

▲同西宮地方

吳仁泳 一〇尺 ▲朴相守 一〇尺 洪昌奎 一〇尺 ▲文中和 一〇尺 裵致道 一〇尺 ▲金忠斗 五尺 宋尙七 五尺 ▲李善鳳 五尺 林鍾明 五尺 ▲黃成奎 五尺 鄭昌寶 五尺 ▲姜三松 五尺 金鳳式 五尺 ▲河相淑 五尺 金松烈 五尺 ▲金在福 五尺 李台彦 五尺 ▲洪哲杜 五尺 洪且壽 五尺 ▲金成萬 五尺 韓善用 五尺 ▲鄭光玉 五尺 金周奉 五尺 ▲李根三 五尺 權潤奉 五尺 ▲蔡淡仲 五尺 裵在浩 五尺 ▲康甲性 五尺 黃龍起 五尺 ▲申仁激 五尺 鄭酒局 五尺 ▲裵元壽 五尺 黃金石 五尺 ▲朴奎 五尺 金相友 五尺 ▲蔡京兆 五尺 林在喜 五尺 ▲金國敬 五尺 裵在範 五尺 ▲李聖道 五尺 金富根 五尺 ▲韓鍾洙 五尺 具起洪 五尺 ▲具起恒 五尺 金正述 五尺 ▲金洪準 五尺 陳三鳳 五尺 ▲鄭五欽 五尺 裵三守 五尺 ▲宋在云 五尺 車開東 五尺 ▲河以龍 五尺 權聖道 五尺 ▲金順愛 五尺 金永拜 五尺 ▲朴根托 五尺

金德守 五尺 ▲李成宗 五尺 高錫祉 三尺 ▲姜性泰 三尺 金聖文 二尺 ▲具學升 二尺 文應具 二尺 ▲鄭相云 二尺 申榮牧 二尺 ▲洪永贊 二尺 金中世 二尺 ▲曹澤烈 二尺 金周伊 二尺 ▲許慶北 二尺 鄭龍伊 二尺 ▲李仙岩 二尺 辛鍾洙 二尺 ▲韓尙益 二尺 李鍾圓 二尺 ▲金三龍 二尺 金千見 二尺 ▲申榮祝 二尺 申浩淑 二尺 ▲韓相澤 二尺 黃又生 二尺 ▲朴漢培 二尺 陳興萬 二尺 ▲曹秉三 二尺 權興連 二尺 ▲朴點化 二尺 李福源 二尺 ▲朴正福 二尺 左仁一 二尺 ▲李祥洙 二尺 李周洪 二尺 ▲白仁奎 二尺 鄭瑞洪 二尺 ▲裵明浩 二尺 金弼祥 二尺 ▲陳秉善 二尺 金鍾浩 二尺 ▲裵萬秀 二尺 金永鍵 二尺 ▲崔宗鎬 二尺 金三壽 二尺 ▲朴三道 二尺 崔珠鎬 二尺 ▲李淳裕 二尺 姜三鳳 二尺 ▲卞鍾甲 二尺 裵七甲 二尺 ▲金亨式 二尺 鄭九石 二尺 ▲金成洛 二尺 金昌鎬 二尺 ▲宋淑順 二尺 申作地 二尺 ▲申然模 二尺 崔高道 二尺 ▲安永述 二尺 宣世東 二尺 ▲申元介 二尺 申榮奉 二尺 ▲朴時浩 二尺 陳雲鶴 二尺 ▲曺斗萬 二尺 李元伯 二尺 ▲張雲龍 二尺 沈乙燮 二尺 ▲柳文伊 二尺 李三萬 二尺 ▲曹尙述 二尺 鄭丑奉 二尺 ▲申末當 二尺 陳應坤 二尺 ▲高七文 二尺 申馬當 二尺 ▲黃雙洙 二尺 林春玉 二尺 ▲韓貴同 二尺 李奉錄 二尺 ▲裵在孝 二尺 韓相益 二尺 ▲金宗護 二尺 裵聖基 二尺 ▲曹鍾鍵 二尺 許陽川 二尺 ▲姜命福 二尺 李勳漢 二尺 ▲金相龍 二尺 李日述 二尺 ▲朴三金 二尺 李元春 二尺 ▲林正守 二尺 李在守 二尺 ▲李在彬 二尺 無名氏 二尺 ▲李進杓 二尺 朴東守 二尺 ▲金應贊 二尺 曹乙守 二尺 ▲宣贊俊 二尺 蔡京生 二尺 ▲金庚述 二尺 陳泳浩 二尺 ▲金潤基 二尺 朴均伊 二尺 ▲梁宗安 二尺 曹貞五 二尺 ▲金奉植 二尺 鄭斗萬 二尺 ▲李相基 二尺 洪明祚 二尺 ▲朴學先 二尺 具明九 二尺 崔允植 二尺 安泰云 二〇尺

▲三國町方面

鄭萬士 一〇尺 ▲金致道 一〇尺 崔甲超 一〇尺 ▲李鳳淑 七〇尺 兪麟濬 五尺 ▲鄭昌根 五尺 李漢祚 五尺 ▲丁吉渠 五尺 李鍾玉 五尺 ▲丁炯鎭 五尺 辛在植 五尺 ▲沈萬石 五尺 朴文讚 五尺 ▲李次龍 五尺 無名氏 五尺 ▲金世甲 五尺 權判植 五尺 ▲姜三龍 五尺 張甲植 五尺 ▲金鍾燮 五尺 朴奉吉 五尺 ▲金士文 五尺 丁米德 五尺 ▲金同雄 五尺 姜點遠 五尺 ▲朴基俊 五尺

姜岩伊 二尺 ▲朴泰伊 二尺 姜永祚 一〇〇尺 ▲李昌壽 一〇〇尺 李向煥 一〇〇尺 ▲金德茂 一〇〇尺 崔允鎬 五尺 ▲文士玉 五尺 金德伊 五尺 ▲具時宗 五尺 金永壽 五尺 ▲甘永煥 五尺 申廷均 五尺 ▲鄭順實 五尺 朴明淳 五尺 ▲申中述 五尺 金鍾福 五尺 ▲申中錫 五尺 李守寅 五尺 ▲申永均 五尺 李吉寅 五尺 ▲朴志吳 五尺 朴志興 五尺 ▲林有伊 五尺 金且守 五尺 ▲申德九 五尺 林文述 五尺 ▲左斗鎬 五尺 李起雨 五尺 ▲林東奎 五尺 李起岩 五尺 ▲李鳳煥 五尺 金亨明 五尺 ▲黃三洪 五尺 李相守 五尺 ▲孫元燮 五尺 安又浴 五尺 ▲裵石岩 五尺 金鍾出 五尺 ▲潘福九 五尺 高京學 五尺 ▲朱敏圭 五尺 金奉國 五尺 ▲李鍾下 五尺 具有書 五尺 ▲金德伊 五尺 甘杜鉉 五尺 ▲文條珍 五尺 李伊洙 五尺 ▲金昌鎬 五尺 李政桂 五尺 ▲姜熙奉 五尺 高大玉 五尺 ▲曹秉煥 五尺 高京天 五尺 ▲金德杜 五尺 金淸河 五尺 ▲李昌基 五尺 金相榮 三尺 ▲金陸大 三尺 閔泳奉 三尺 ▲金相斗 三尺 文浩贊 三尺 ▲申泰均 三尺 安洙善 三尺 ▲高濟用 三尺 金消相 五尺 ▲羅鳳燦 五尺 申中壽 三尺 ▲周泰用 三尺 李東燮 三尺 ▲金千萬 三尺 鄭永國 三尺 ▲甘泳祚 三尺 安祚守 三尺 ▲金鍾泳 三尺 金正河 三尺 ▲金相鎬 三尺 盧甲成 三尺 ▲李夢仁 一尺五寸 金海也 三尺 ▲韓貴洙 三尺 姜鳳祚 三尺 ▲李根燮 三尺 曹三述 三尺 ▲朴定玉 三尺 金世文 三尺 ▲中山 三尺 金東水 三尺 ▲李昌雨 三尺 周會山 三尺 ▲李八岩 三尺 李春善 三尺 ▲崔慶烈 三尺 姜永福 三尺 ▲金鳳熙 三尺 大國川 三尺 ▲金在奉 三尺 甘連 三尺 ▲金點河 三尺 魯徐甲 三尺 ▲關地恒雄 三尺 金點石 三尺 ▲阪本文太郎 一尺 野田久吉井 一尺 ▲平瀨寬次 一尺 佐伯秀一 一尺 ▲木村武雄 一尺 阪上辰治郎 一尺 ▲平野하쓰에 一尺 納多사와에 一尺

▲立花村方面

崔秉才 五尺 ▲兪哲伊 五尺 金泰守 五尺 ▲鄭文洙 五尺 李夢致 三尺 ▲孫慶弼 三尺 崔三哲 三尺 ▲金亨鳳 三尺 金外出 三尺 ▲李一均 三尺 文德洙 三尺 ▲黃彬 三尺 金慶相 二尺 ▲崔在範 二尺 南守鉉 二尺 ▲鄭致善 二尺 崔在守 二尺 ▲崔奉大 二尺 鄭昌根 五尺 ▲金石球 五尺

文德洙 ▲李一均 金慶相 ▲黃彬 南守鉉 ▲崔在範 崔在守 ▲鄭致善 鄭昌根 ▲崔奉大

鄭昌根 五尺 ▲金石球 株式會社和信大阪仕入部拔第二回 學習帳 二、八〇〇冊 東洋노트 鳥打中折帽 一〇打半 三輪商店 샤쓰 二十二枚 六新商店 즈봉 二十七枚 若原商店 上衣十七枚 ▲同 기저귀 四十九枚 三角商店 밀크그림 二〇打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一、〇〇〇、〇〇東京市芝區西久保廣町一八野依秀市 ▲一〇〇、〇〇京城府旭町二ノ四九東條正平 ▲二、〇〇岐阜市明德尋常小學校五學年男子學生 ▲七二、五〇 三 成鏡業株式會社、義州鑛山株式會社本店在勤員 ▲一〇〇、〇〇京城府義州通二丁目京城水產株式會社 ▲八〇、〇〇福岡縣若松警察署內若松相愛會 ▲四、〇〇東京府八王子市內外居住者鄭煥九外七人 ▲二〇、〇〇東京市澁谷區代代木本町會 ▲一〇、三九忠南唐津郡合德公立普通學校兒童 ▲五〇、〇〇黃海道白川溫泉、白川靑年會員 ▲一八吉林普通學校職員生徒一同 ▲二、〇〇濟州島邑內三徒里金斗彦(每日申報社拔) ▲一八、〇〇滿洲國濱北線安家驛前通北朝鮮人會內河北振興會員一同 ▲五、〇〇同通北普通學校生徒一同 ▲二二、一五平南江西郡、瑤鶴婦人會 ▲二、七名(每日申報社拔) ▲三、〇〇東京市澁谷區代代木初臺町會長松本愼一郎 ▲三〇、〇〇福岡縣福岡高等女學校香蘭會長田中次郎氏(福岡日日新聞社拔) ▲一、〇〇三同遠賀郡香月町貝島大辻小學校生徒三名(同) ▲五、七一同同校生徒四名(同) ▲九、七五同穀牛郡笠松村飯三倉大之浦炭坑第七坑朝鮮人(同) ▲二五、七〇同同植木町權善道外五九名(同) ▲六一、三三東京市芝區西芝浦四丁目三協會員一同(朝鮮出身者) ▲一八、二〇鯉江相助會鯉江地方支部(朝鮮人團體)鯉江警察署拔) ▲二五、二〇同 ▲一〇、〇〇鯉江相助會神明地方支部(同)(同) ▲上鯉江、福田晉治 ▲四、八四岩手縣山子澤尋常小學校職員兒童一同 ▲二、〇〇大東靑年團山子澤靑年團聯合分團員 ▲五、五〇岐阜縣郡上郡八幡町居住朝鮮人(八幡警察拔) ▲二三、二五福岡縣八女郡羽犬塚町居住朝鮮人一同 ▲一、〇〇、〇〇京城府南米倉町二八一新田留次郎 ▲五〇、〇〇東京府立第二中學校阿佐ケ谷學友團代表中島富三吉 ▲五〇、〇〇東京市澁谷區千駄谷二ノ三八五松平康昌

▲四五、〇〇大阪市東成區猪飼野西三丁目一在阪朝鮮人美生會 ▲三三、二七平南平壤平川里四四平壤兵器製造所職員 ▲三〇、〇〇東京市澁谷區代代木富ケ谷町町會 ▲五、〇〇秋田縣本莊町內鮮融和共榮會(本社日報社拔) ▲九、六〇黃海道谷山邑內張渭瑨 ▲二、九六忠南瑞山郡古南面易學校兒童一同(京日社拔) ▲四、三九東京城工業學校鑛山科學生 ▲二、五〇開城府池町四日報社拔(內譯) 五圓同李淵敎 六圓三十錢也北面親睦會 四圓韓秋 二十四圓(同) 二十八圓郵便料二十一圓三十錢 外二十二錢 四圓 五十錢 鍾路 合計 五十錢 竹川 鮮人一同 送料及衣服料四圓九十錢 徐 十四圓十錢 橫濱市中區中村町 五丁目在留朝鮮人 二十七圓八十錢 錢橫濱市中區井土ケ谷町金剛親睦會 外六十七人 十六圓五十錢東京市日黑二丁目 高應坤外三十三人 五十五圓五十錢 滋賀縣滋賀郡葛川村任善萬外六十名九圓三十錢長淵郡大敎面龍田洞(郵便料二十錢除)大額一 孫昌基外十四人 十五圓三十錢名古屋市中區白金町三八許龍秀外三十六人 十圓三十錢神奈川縣足柄下郡宮城野村、辛快植外十八人 三十一圓五十三錢北海道北見線下頃別字曾丹砂八二四李相基外七十一名 十圓十五錢樺大惠須取町南濱町一ノ二四申玉子外二十二名分 ▲三、〇〇吉林金光敎小敎會 ▲一四、七八江陵營林署職員 ▲五、三五咸北明川郡朝鮮總督府種羊場職員 ▲一〇〇、〇〇朝鮮山府群山米穀取引所理事長森菊五郎 ▲二三、七九朝鮮總督府癩療養所小鹿島更生園職員 ▲一三、〇〇二佐賀市八戶町內鮮交友會(代表金龍與) ▲一、二〇臺灣高雄州內浦皇國農民學校職員生徒 ▲五八、三九淸津地方法院職員 ▲三〇、〇〇北鮮製紙化學工業株式會社、本社員及吉州建設者一同 ▲五〇、〇〇大日本鹽業株式會社取締役社長一宮銀生

十月五日現在累計 二二二、八二七、七〇

日用商品市況

七日 京城市內 主要穀市況은 大體다음과가타

▲大豆 續強

新豆小口出回가 始作되므로 當日市勢는 連日軟調하야 賣買도 至極히 閑散하다 年內限新豆先物은 期米續落으로 低落되어今日市勢는 石當

	現物當	年內限新
龍山三等	二七、〇	八、〇〇
達次良	〃	八、〇〇
金汗	〃	七、〇〇

▲粟 保合

期米續落으로 賣氣不振이나 現品出廻最盛期까지에는 尙未遠함으로 低價買入賣는 警戒되어閑散保合이나 亦是 保合狀態이다 今日市勢는 百斤當

	現物	年內限
奉天	七、八〇	七、四〇

▲大麥 軟弱

別無賣買이나 期米及 雜穀續落

▲小麥 弱含

大麥秋（大邱產） 八、二〇 春（西鮮產）七、八〇

으로 低落되엇다 今日市勢는石當

九月麥麩波도一般落되고 米價低落關係로 麥粉賣行이 不良하야 製粉界는 一切見送임으로 今日時勢는 無力하야 弱含이다

沙里院	二〇、八〇
新春	一九、八〇

▲胡麻 續落

現品賣行不振으로 手持品處分에汲汲하야 別無實買로 時勢는 低落一途이다 新胡麻도 月末에는 入荷될것임으로 當分 好轉難望이라한다 今日時勢는 石當

南京	一四、二〇
天津	一四、〇〇

黃昏 (197)

韓雪野 作

安夕影 畵

그전후 (九)

「딴길?……딴길이란 뭐냐?」

동필은 이러케 쏘아부치고다 시말을 이엇다——

「할말이 업는 때에는 동무들끼리 물어뜻고 하다못해 제다리라도 뜨더먹구야 마는것이너가튼놈들의 십사다。……정말 일을하라는 성의가 잇고 보다큰 직한 문제가 닥다려봐라! 너이놈들처럼 동무들끼리 뜨더먹구 잇서……개가튼놈들!」

그래도 준식은 잠시 대구가 업다。

「그러면 너의놈들이 가는、그놈팡은 길이란 무엇이지 좀말해봐라……주제넘은 자식들……」

그때에 준식은 결연히 말하엿다。——

「아직 잘 들어가지안흔 모양이로구나。한번 더말해주마、네가 지금의 그래도를 끈치지안는이상、우리들의 편은 아니란말이다」

준식은 사실 동필의 말속에서 넷날의량심을 엿볼수 잇섯스나 그것을 좀더 채질해주기 위하야 한번더 공세(攻勢)를취하엿다——

「참말 일을 하려니까 너이가튼것을 경계하고 배제하게되는거다」

「뭐?」

순간 동필은 터럿끗까지 끌이 치밀엇다。꽉 겁어쥔 시컴언 주먹이 준식의 왼뺨을 버리가티 후려갈겻다。

준식의 코아프로 붉은 핏줄이 죽 흘러내린다。그는 종용히 손울 들어 그것을 씻스며 서릿발가튼 웃음을 띄우고 외첫다——

「재량심이 몹시 쓰실때에는 그것을 속이기 위하야 남을 때림으로써 재량심의 아픔을 가리라고 하는법이다……그러나 아직까지 아파할 량심조트리나마 남아잇는것은 너를 위해서 다행한일이다」

그러나 동필은 잠시 말끄틀 일흔듯이 그저 와강히 버티고만 섯다。

「너두 량심이 잇스면 생각해봐라。오래된 그만두고 작년녀름——특별정금문제이후 오늘까지의 너의 행동을 반성해보란말이다。우리가 너를 버렷는지、네가 우리를 버렷는 지생각해보란말이다……그러컷만 오늘까지도 우리는 너에게 기대를 가지고 잇섯다。그러나 너는 끗까지 레박게서 배돌라고만하고、그리고도 비밀교섭을밧

고도 뒤언반사의 말이 업지안 헛느냐? 그래도 너를 미더야할것이냐?」

「비밀교섭?……이놈아! 너까짓놈들이 무어라고 떠버리더라도 내게는 내생각이 잇다。너이가 참견하지 안허도 내일은 내가할테니 걱정마라」

「그것부터 틀린생각이아니냐? 네가 너혼자서 네속에 罪조를 배포해다가로서니 그게 우리게 무슨 소용이냐?」

「이놈아! 털보와 얘기만해도 배신자!……엥히 바람개비가튼 놈들! 너이야말로 가위 그런 소질을 가진놈들이란줄 알겟다。너이와 말하는 내가 되려 리석다。어느놈이 올흔지는 일을 겨거봐야 아는거다」

하고 동필은 그만 획 나가 버렷다。

「이놈아!」

준식은 재바르게 이러서 그의 덜미를 잡혓다——

「어델가느냐?」

그리자 동필이는 피줄다서며 「어델가?」

하고 눈을 모로 깔떠본다。

「못간다。못가……」

「그래 이거 안놀테냐?」

「너를 네가는대로 보낼줄아느냐?」

「보낼수 업서?」

「너의 친구로서 너를 잡아올 권리가 잇단말이다」

하고 준식은 팔에 힘을 주어 홱끄러 안치려하엿다。

「이놈아! 그래 때릴테냐?」

허나 동필의 말에는 힘이업섯다。

「안저라、안저……」

「……………」

「나는 우리들을 위해서、우리들의 한가지 의무를 행하고잇는거다。못간다」

그때는 벌서 동필에게는 아무 말도 업섯다。

「지금 때와 일과 우리는 함께 너를 기다리고 잇다。빗나 든 너를 기다리고 잇다」

그순간、준식은 별안간 자기의말에 눈뿌리가 뜨끔해짐을 느꼈다。

「자아 손을 보내라。손을……」

준식은 그의 손을 겨여쥐고 한손으로 코아플 닥갓다。

순간 동필의 눈도 이술가리 빗낫다。

「자아 나가자! 모두들 기다리고 잇다」

준식이가 팔을 끄는대로 필이도 어리석다 두사람은 급히 겁어 동무을 러벅러벅 뛰어다。심창은 놉게